

RUSSIA IN&OUT

RIO

2026. 1 | No. 21

특집 기획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

이슈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전망과 젤렌스키 정부의 내부 위기

RIO 초대석 소설가 아나톨리 김, 자유를 추구하는 숲속의 은둔자

크렘린 전망대 푸틴의 성탄절: 종교적 축일의 정치적 의미

경제 내비게이션 2026년 러시아 경제 전망: 냉각기에서 균형 성장으로

역사 프리즘 국경 밖의 영웅들: 러시아인 레지스탕스

예술 현장 플리세츠키야와 셰드린: 예술에 바친 삶 이야기

미디어 트렌드 푸틴의 침묵: 베네수엘라-이란 사태에 대한 러시아 반응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아르한겔스크 출신의 미하일 로모노소프는 오로라 현상을 두고, “무엇이 밤하늘에 선명한 빛의 물결을 일게 하나? 무엇이 열은 불꽃을 창공으로 내달게 하나? 어떻게 먹구름 없이 땅에서 하늘로 번개가 치는 걸까? 어떻게 한겨울의 차가운 증기가 불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경탄의 송시를 썼다. 280여 년 전 일이다. 북극권의 네네츠 자치구에 거주하는 나는 사진 작업을 통해 이 땅의 독특한 자연 풍경,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벽차게 다가오는 유일무이한, 무한한 자연의 힘을 전하고 싶다. “마음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라는 표도르 튜체프의 시구절이 떠오른다. 겨울밤에 마주한 당당하고 완벽한 북극광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무력할 뿐이다. 침묵 속 관조가 유일한 응답이 아닐까? [사진: 글: 빅토르 쿨리코프]

발간사

세계의 경찰이 발을 빼자, 세계 곳곳이 전쟁이다. 전쟁이 만물의 아버지이자 만물의 왕이라는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인류는 늘 그렇듯 또 하나의 새 생명을 위한 산고를 겪고 있다. 투쟁이 생명의 본능이라는 니체도, 사회 발전은 계급 투쟁의 결과라는 마르크스도, 국가의 목표는 생존 투쟁이라는 미어샤이며도 전쟁이 인류의 숙명이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이 숙명은 그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특히 약자에게는 더 그렇다. 전쟁이 숙명이라면 약자에게는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쓸모없는 나무는 베이지 않는다는 장자의 무용지용(無用之用) 전략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세계를 촌촌히 채운 자본의 눈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은 다윗의 지혜와 용기다. 전쟁의 원인을 미리 없애는 '가마솥 밑 장작 빼기 전략'인 부저추신(釜底抽薪), 전쟁에 끌려들어도 '상대의 의중을 미리 꿰뚫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상병벌모(上兵伐謀), 강자에게 끌려다니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반객위주(反客爲主)의 지혜와 용기다. 이는 타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다. RIO 21호 「특집 기획」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내몬 강대국 패권 경쟁의 본질을 파헤치고 종전 후 세계 질서를 전망한다. 「이슈 진단」은 내부 역량의 부재로 스스로 전쟁을 선택한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도 역시 내부 위기로 차악의 기회를 최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경제 내비게이션」에서는 종전을 앞두고 경제 연착륙을 준비하는 2026년 러시아 경제를 전망하고, 「미디어 트렌드」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협박에도 끝내 침묵하는 푸틴의 냉혹한 지혜를, 「크렘린 전망대」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을 국민 통합에 활용하는 푸틴의 정치적 지혜를 조명한다. 한편, 신념과 가치를 위해 때로는 타자와 때로는 자신과 부단히 싸우는 진정한 투사의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역사 프리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 러시아를 떠나 먼 이국에서 히틀러와의 싸움에 헌신한 숨은 영웅들을, 「RIO 초대석」은 지고한 정신의 근원을 찾아 평생을 자신과 싸우는 작가를, 「예술 현장」은 인민의 적에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분투한 위대한 무용수를 소개한다. RIO도 세계 최고의 러시아 전문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성의 채찍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RIO 독자들께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보다 더 따끔한 비판의 손길을 기대한다.

2026년 1월 31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1월호 No. 21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욱
디자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04 | 특집 기획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 이대식

기술 혁신에 따른 글로벌 산업 패권의 전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목도할 새로운 국제 질서를 글로벌 가치사슬과 금융 패권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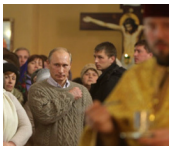
17 | 이슈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전망과 젤렌스키 정부의 내부 위기 카차노우스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협상 진전 내용을 정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러·우 간 핵심 쟁점과 이견을 통해 젤렌스키 정권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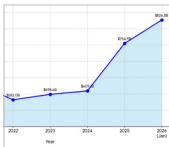
29 | RIO 초대석
소설가 아나톨리 김, 자유를 추구하는 숲속의 은둔자 김현택

모스크바 근교 페레델키노에 사는 한국계 러시아 작가 아나톨리 김을 만나, 노년을 맞은 작가의 삶, 최근의 창작활동, 일관성 있게 추구해 온 작가 정신 등을 들어본다.



45 | 크렘린 전망대
푸틴의 성탄절: 종교적 축일의 정치적 의미 라승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사반세기 이상 정교회 성탄절 미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온 과정과 이로부터 확립된 그만의 특별한 전통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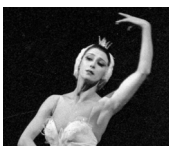
57 | 경제 내비게이션
2026년 러시아 경제 전망: 냉각기에서 균형 성장으로 알렉산드르 크라마렌코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와 함께 전시 경제에서 평시 경제로의 연착륙을 준비하는 2026년 러시아 경제를 군수 산업, 내수 시장, 에너지, 교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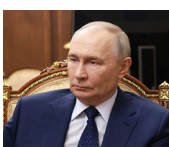
65 | 역사 프리즘
국경 밖의 영웅들: 러시아인 레지스탕스 예카테리나 지리츠카야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레지스탕스 투쟁을 탐구하며 국경 밖에서 축적된 반파시스트 활동이 뒤늦게 러시아의 '공통된 역사적 기억'으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76 | 예술 현장
플리세츠카야와 셰드린: 예술에 바친 삶 이야기 박선영

전설적인 발레리나 플리세츠카야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0주기였던 2025년, 남편인 작곡가 셰드린이 92세를 일기로 타계했기에 두 부부의 삶과 예술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열정을 기린다.



86 | 미디어 트렌드
푸틴의 침묵: 베네수엘라·이란 사태에 대한 러시아 반응 김유정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가원수 체포에 이어 발생한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유혈 시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푸틴 대통령의 침묵에 담긴 의미를 짚어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 정부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갈 길이 바빠진 미국 행정부의 공동 압박으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가 평화 협상을 수용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러시아의 사실상 승리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으로 종전될 경우 이미 다각화로 가는 국제 질서의 모양새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왜곡된 세계 공급망과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RIO 「특집 기획」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핀 후 새로운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를 제안한다.

연재 순서

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
2.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변화
3. 중·북·러 관계의 진화
4. 한·러 관계의 재정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

이대식 RIO Institute 대표

1. 들어가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동유럽의 국지적 분쟁을 넘어, 냉전 이후 30년 간 유지돼 온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해체되고 본격적인 다극화(Multipolarity)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린 거대한 지정학적 변곡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쟁 발발 이전의 글로벌 수직 분업 체계와 기술 패권의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고, 4년여의 전쟁 과정에서 고착한 새로운 경제적·지정학적 동력을 분석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과 차세대 기축통화 경쟁이라는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가 국제 질서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이런 분석적 틀을 바탕으로, 전쟁의 종결 양상이 기존의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어떤 변수를 던질 것이며, 러시아를 비롯한 티어 2(Tier 2), 즉 중견 강국들이 어떤 실용주의적 전략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예측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술 주권이 국가 생존의 핵심이 된 다극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견지해야 할 전략적 포지셔닝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언할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국제 질서: 미국의 애플 곡선과 단일 패권의 위기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전까지의 국제 질서를 살펴보자. 이는 애플 곡선(Curved Line)에 기반한 글로벌 수직 분업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에 균림하는 단일패권 시대가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의 부상으로 균열이 시작된 시기였다. 애플 곡선은 21세기 미국 패권이 기존 글로벌 패권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광역화되는 핵심 기반이었다. 미국 이전의 유럽과 세계의 패권은 실물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후 금융 패권으로 옮겨가면서 전성기를 거쳐 퇴조하는 사이클을 반복했다. 패권 국가의 부상은 항상 실물 경제의 압도적 우위, 즉 실물 상품 생산과 유통의 경쟁력 우위에 의한 독점적 이윤(Profit) 확보 능력에서 비롯됐고, 패권의 퇴조는 실물 상품 경쟁력 퇴조에서 비롯됐다. 그 핵심에는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가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실현되는 지점이 지나면 임금 상승 및 노조·법률·보험 등 관리 조정 비용 증가, 환경 규제 강화, 에너지 및 토지 비용 상승으로 추가 생산이 비효율적인 시점이 온다. 이후 패권국의 제조업은 더 생산할수록 더 손해 보는 단계로 진입한다. 제조업 우위가 차츰 경쟁국에 넘어가면 기존 패권국은 상품 생산과 판매의 이윤보다 훨씬 더 쉽고 큰 수익을 주는 금융 이자(Interest)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 기생하는 금융 패권국은 결국 새로운 실물 경제 주도국에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된다.¹ 그러나 미국은 예외였다. 제조업 퇴조 이후 금융 패권으로의 이전이라는 기존 경로를 반복하면서도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 패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차별성을 보였다. 이른바 인터넷 혁명에 의해 제조업의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 부문인 전방(마케팅, 유통, 판매 등)과 후방(디자인과 설계 등)을 독점하고 저부가가치 부문인 실물 상품 제조는 저임금 국가에 할당했다. 이로써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의 폐해는 외주화를 통해 벗어나고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와 결합한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의 수혜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음원처럼 실물 제조가 필요 없는 IT 산업은 상품의 추가 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이 없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한편으로는 구글이나 메타처럼 아예 제조업 자체가 필요 없는 데이터 플랫폼을 독점하거나 애플처럼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가 작동하는 실물 상품(스마트폰)의 생산은 아웃소싱하고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가 작동하는 부분, 즉 실물 상품의 디자인과 마케팅, 유통, 판매와 더불어 실물 위에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애플 앱 등) 운용을 독점했다. 이로써 기존 패권국 네덜란드와 영국의 패권 사이클을 극복하는 동시에 패권의 수명과 영역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했고 세계 최초의 세계 단일패권을 구가했다. 문제는 가치사슬의 중반부인 제조만 전담했던 후진국, 특히 중국이 전방과 후방, 즉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까지 넘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장기 단일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판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을 출범시켰다. 사실상 미국의 애플 곡선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애플 곡선이 등장한 것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애플 곡선을 무력화시킬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축을 차지했던 독일,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일부 동남아 국가 등 이른바 중견 강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국력과 저항도 미국이 되돌아키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미국의 위대한 적응력이 빛을 발한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자체 역량 퇴조와 글로벌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애플 곡선 기반 단일 패권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즉 다극화를 미국을 위해 최적화하는 작업에 돌입”

경쟁 판도 변화를 인정하고 단일 패권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즉 다극화를 미국을 위해 최적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전략이 거의 최초로 노출된 것은 2010년 9월 8일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행한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전략적 순간(A New Strategic Moment)”이라는 주제의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클린턴은 “우리는 더 많은 파트너가 더 많은 리더십의 책임을 나누는 더 다극화된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²라고 밝혀 미국 정부가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준비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위해 국가정보위원회(NIC)가 4년마다 발간하는 글로벌 트렌즈(Global Trends)도 2012년 이후 매년 다극화 세계로 가는 변화의 비가역성을 주장했다. 2012년에는 “2030년까지 미국, 중국 등 어떤 나라도 패권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2017년에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허물어지고, 국가들은 점점 더 자신들만의 세력권을 구축하려 한다,” 2021년에는 “국제 시스템이 해체되고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나 파편화된 세계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다극화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주요한 축이었던 세계 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작업도 진행됐다. 오바마 정부는 2016년부터 한국의



장승화 위원을 비롯한 WTO 상소기구 위원의 선출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9년 트럼프 정부에 이르러 의사정족수 미달로 상소기구의 기능, 사실상 WTO의 기능이 정지됐다. 민주당에서 시작되어 공화당으로 이어진 초당적 정책의 결과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핵심 원인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확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련 붕괴 이전의 나토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련 붕괴 즈음의 나토 확장이 통일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의 나토 확장은 중국-러시아-독일 삼자 협력 관계를 해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다극화의 주요 경쟁극들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독일은 중국에 강력한 기술 제공자였고 중국은 독일 제조업의 최대 시장이자 독일 제조업 4.0을 위한 주요 파트너였다. 러시아는 독일과 중국에 값싼 원자재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일과 중국을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비록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측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2022년 1월, 즉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스웨덴 언론 《니야 다그블라뎃(Nya Dagbladet)》에 의해 알려진 랜드연구소 보고서 「독일의 약화와 미국의 강화」에 담긴 핵심 내용, 즉 “나토 확장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유도하여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를 거부하게 만들어 독일 경제를 붕괴시킨다”라는 계획은 미국의 당시 세계 전략과 일치하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조지 케넌과 존 미어샤이머 등 국제 정치계의 거물들이 수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은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부를 비극적 실수라고 경고했고 우크라이나 전운이 감돌던 당시에도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 대다수가 나토 확장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이를 밀어붙인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잠재적 도전자인 러시아를 제거하고 독일을 포함한 방황하던 동맹 유럽을 미국의 하위 경제권으로 복속하여 궁극적인 경쟁자인 중국을 최대한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에 가장 최적화된 다극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고도의 지정학적 기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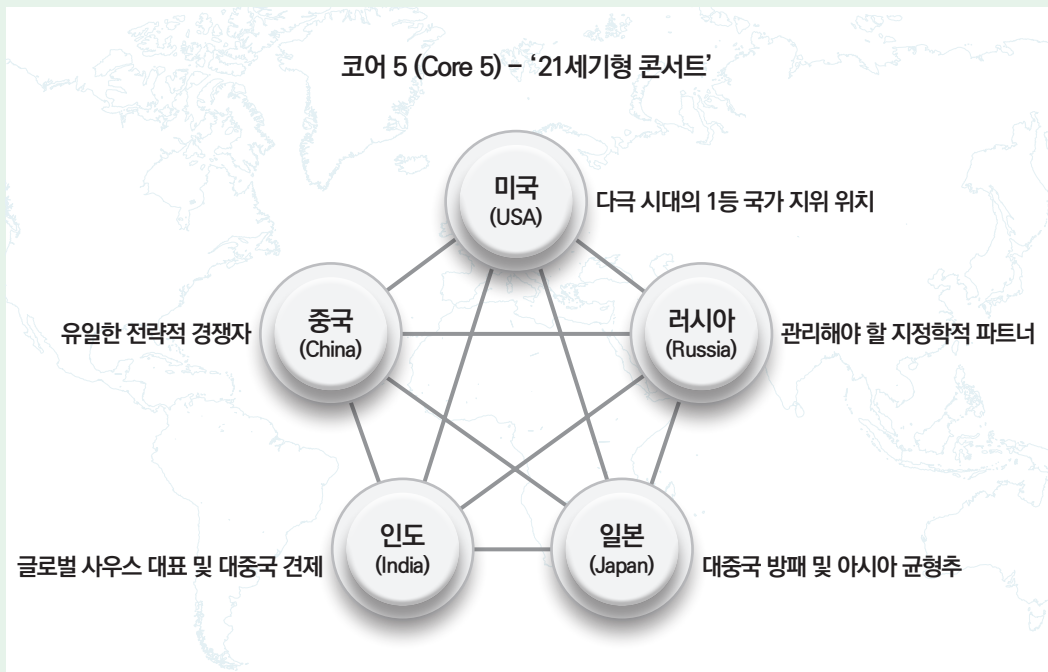
3.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 Core 5 체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시도한 고도의 지정학적 기획은 성공했는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부분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의 붕괴밖에는 없다. 에너지와 자원 수출길을 유럽에서 브릭스(BRICS)로 돌린 러시아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지경학과 지정학에서의 몸집을 더욱더 키웠다. 이와 동시에 인도와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미국과 그 하위 경제권으로 전략했지만 뒤늦게 자립을 추진하는 유럽을 제외한 다극화의 나머지 주요 극들 간의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됐다. 다극화의 추세는 더 확고해졌으나 미국보다는 비서방에 더 최적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세계 질서 상에서 미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에서 과거의 매력을 잃었고 다만 누구도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물리적인 위력과 헤픈 씬 씬

이(시장) 때문에 모두가 눈치를 보는 글로벌 차원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로 전락했다. 2025년 12월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은 기존 입장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적대적 언급을 회피하고 경쟁과 견제 속에서도 국제 질서를 함께 이끌어가는 공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유럽을 동등한 파트너로 더는 인정하지 않는 전략적 선회를 공식화했다. 미국의 하위 동맹국이면서도 미국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유럽은 무시하고 차라리 미국에 거추장스럽지만 세계 질서의 무시할 수 없는 축이 된 중국, 러시아, 인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하위 파트너로서 절대 복종을 맹세하며 미국의 서태평양 제해권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일본을 추켜세우는 미국판 새로운 다극적 질서가 이른바 코어 5(Core 5) 체제로 제시됐다. 이 체제의 하위개념으로 제시된 21세기판 고립주의인 ‘돈로주의’는 새로운 다극적 질서 속에서 미주 대륙과 북극의 북서항로를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주장하며 베네수엘라 침공과 그린란드 및 캐나다 편입의 야심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코어 5 체제의 파트너인 중국,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대만,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둘러싸고 나온 미국의 입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란을 야기했다.

코어 5 체제는 그 이중성에서 19세기 유럽의 5국 지배 체제인 ‘유럽 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와 유사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미 성립된 공동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패권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는 체제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후 영국과 러시아의 주도하에 프랑스, 프로시아, 오스트리아가 합류하여 결성한 평화 체제는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자유주의를 억압해야 하는 전제군주들의 공통 목표 위에 설립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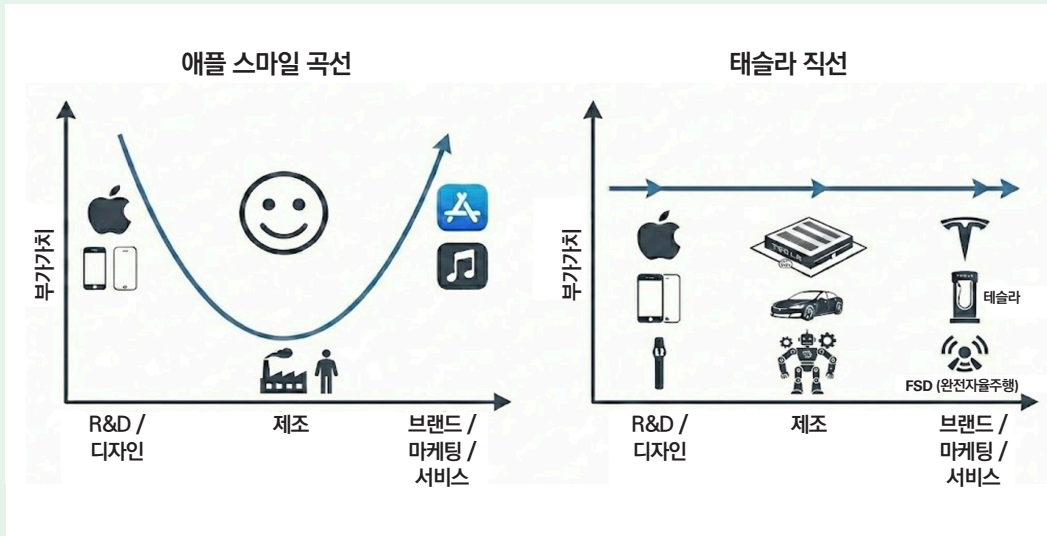


“Core 5 체제는 19세기 유럽 협조 체제처럼
애플 곡선하에서 협조하지만
AI 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열한 자원과 시장 확보 경쟁이 다섯 제국 간에 시작됐다. 이는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코어 5 체제는 사실상 미국이 만든 경제의 세계화 프레임 속에서 성장하여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들의 협조 체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선언한 ‘작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은 역으로 ‘큰 마당, 낮은 담장(Big Yard, Low Fence)’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증한다. 월마트 제품 중 중국산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훨씬 더 넘는다(약 60%).³ 심지어 ‘작은 마당’에서도 미·중 간 협력은 불가피하다. 애플 주요 제품의 95%가 중국에서 최종 조립되고 애플 공급업체의 약 80%가 중국에 위치한다.⁴ 테슬라 공급업체의 17%가 중국에 소재하고 차량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에서 나온다.⁵ 중국의 희토류 없이 미국의 첨단산업은 유지 불가능하다. 러시아, 인도, 일본 등도 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AI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상호 물밑 경쟁이 언젠가 이 협조 체제를 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2) AI 기반 가치사슬 ‘테슬라 직선’의 대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기간 전쟁보다 더 크게 국제 질서를 뒤흔든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고 깊게 인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AI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그해 11월 30일에 공개된 오픈AI(Open AI)를 필두로 경쟁적으로 등장한 미국과 중국 등의 LLM 기반 AI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 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근본 동력으로 부상했다. 이 AI 개발과 진화,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제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했다. 우선 AI가 바꾸는 경제 패권의 지형도는 생산의 세계화를 가져온 애플 곡선이 점차 뒷전으로 밀리고 AI 기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특정 국가와 지역으로 생산이 국지화되는 가칭 ‘테슬라 직선’이 전면화된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저부가가치의 제조 공정이 인간 노동에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가치사슬의 전후방 부문과 마찬가지로 자본·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공정으로 승격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의 전 가치사슬이 고부가가치를 산출하며 특정 국가에 집중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정으로 차량 설계, 배터리 설계, 생산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판매가 모두 제조와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가 결합된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테슬라는 자본, 기술, 시장을 모두 갖춘 중국과 미국으로 기가팩토리를 이원화하고 있다. 이는 피지컬 AI가 고도화되면서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 일차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우주 등 첨단 제조업 분야로, 이후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애플 모



제조업 가치 사슬 비교 © 저자 제작

텔로 대표되는 생산의 글로벌 수직 분업 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자기 완결적 생산 공정을 갖 추기 위한 중국의 홍색 공급망이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생산의 국지화에 대비하는 사전 포 석이다.

한편, AI 기반 자동화가 달성하는 고도의 생산성은 특정 지역에서만 소화할 수 없는 대규모 제품을 양산하게 되고 이 대규모 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과 대량 생산 제품의 소비는 세계화될 수밖에 없다. 생산의 국지화와 조달 및 소비의 세계화라는 이중적 메커니즘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극적 세계 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물적 기반이 될 것이다. 먼저 생산의 국지화를 위한 자본과 기술의 집중화 경쟁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당분간 '빨대 효과'처럼 주변부나 우호국 경제를 빨아들일 것이다. 중국은 압도적 상품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은 안보와 자국 내수 시장의 압도적 강제력을 담보로 한 관세 블러핑을 통해 이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의 국지화 단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글로벌 차원의 조달과 소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것이 21세기 지정학적 갈등의 가장 큰 불씨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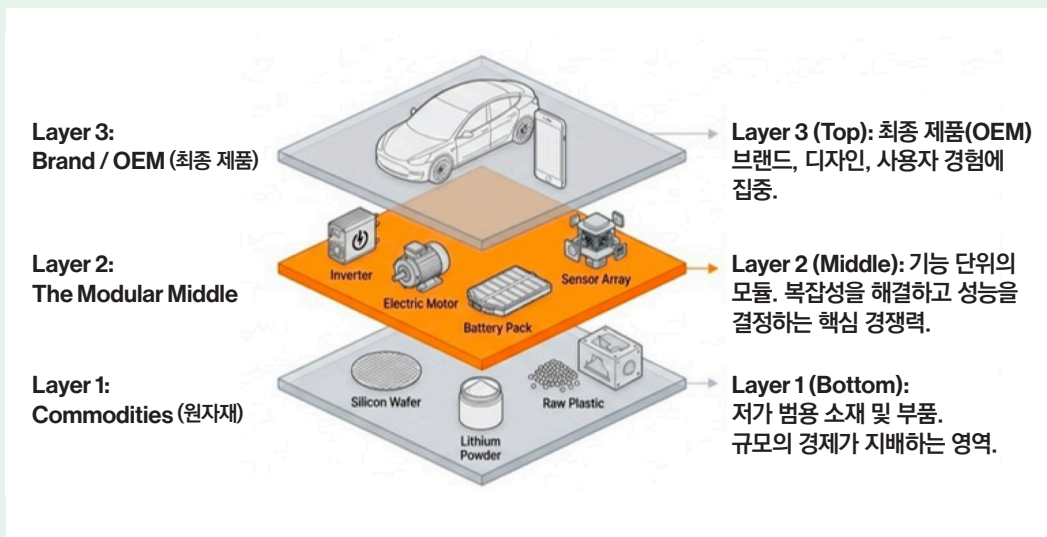
3) 제조업의 AI 전환과 티어 2 국가의 부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물 상품 생산에 적용되던 한계생산비용체증 원리가 피지컬 AI에 의한 공정의 자동화에 의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전통 제조에서 한계생산비용체증 원인이

“ AI 혁명으로 생산의 국지화와 조달 및 소비의 세계화라는 이중적 메커니즘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극적 세계 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물적 기반 ”

있던 숙련 노동의 희소성, 특정 작업자와 설비에서의 공정 병목, 공장 면적과 동선의 한계, 품질 편차의 증가, 관리 복잡성 증가 등이 AI에 의해 제조 공정이 모듈화와 표준화되고 전 자동화됨으로써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추가 증산에 따른 노동·설비의 병목은 모듈 복제로, 추가 노동자의 숙련도 편차는 소프트웨어 표준화로, 품질 하락은 생산 데이터 자동 피드백으로, 관리 비용의 급증은 알고리즘 관리로 해결된다. 예를 들어 향후 제조업의 전 영역에 기본 동력원이 될 전기로 구동되는 노트북, 전기차, 드론, 로봇 등 모든 제품은 배터리, 인버터, 프로세서, 센서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폰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기 모터와 액츄레이터 등만 추가되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크기만 다른 동일한 모듈 단위들의 재구성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동화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 최종 제품이 무엇인가에 따라 모듈의 구성만 재편되므로 향후 제조 공정 경쟁력의 핵심은 원자재와 저가 범용 소재 및 부품 조달의 하부 차원(Bottom Layer)과 노트북, 전기차, 드론, 로봇 등과 같은 최종 제품의 브랜드,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영역인 상부 차원(Top Layer)이 아니라 그 중간 차원에서 기존 제조업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원가, 성능, 신뢰성을 최적화하는 모듈러 미들(Modular Middle)의 조직화 능력에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이른바 전 산업의 스마트폰화 혹은 컴퓨터화 시대를 지배할 기업은 이 유연한 만능 모듈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 될 것이다.⁶

2026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중국의 로봇청소기 회사 ‘드리미’가 슈퍼카를 만든 것이 향후에는 일반화될 것이다. 이렇듯 제조업의 모듈 기반 자동화로 실물 제조에서의 한계생산비용 원리가 거의 사라지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익 증가가 지속된다면 데이터 기반 IT 산업에 적용되던 ‘선승자 독식의 원칙(First Winner Takes All)’이 제조업에도 적용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 자국의 생산 자동화를 통해 선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집중할 것이다. 기정확이 향후 다극화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에 동등한 능력과 지위로 대응할 만한 국가나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상대적 국력의 우위에 의해 티어 1(Tier 1)을 구성하고 다른 국가들은 티어 2를 구성하는 불균등한 다극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티어 1을 구성하는 같은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티어 2 국가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제조 공정 자체에 한계생산비용체증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제조 시스템의 외부에 이 원칙을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규모 생산에 부응하는 조달(공급망)과 소비(시장)를 갖출 수 있느냐, 제조의 3차원 구조 측면에서는 1차원(원자재와 범용 부품 공급)과 3차원(최종재 판매)이 2차원의 생산성에 부응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미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 오픈AI(Open AI)는 높은 에너지 소비와 고비용의 칩 구매로 인해 마치 실물 제조업처럼 한계생산비용체증의 덩어리에 빠져 있는 동시에 압도적인 무료 사용자 비율로 인해 해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50억 달러, 2025년 80억 달러 이상, 2026년에는 14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 드는 전기 비용,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고비용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 구매, 그리고 5% 수준에 정체되고 있는 유료 구독자 수준, 특히 유럽 시장의 성장 둔화가 이 적자의 원인이다. 즉 원자재와 범용 칩 조달 제한과 시장 정체라는 AI 구동 시스템의 외부 요인이 적자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희토류 조달을 위해 그린란드를 넘보고 석유 공급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은 향후 닥칠 자동화에 기반한 고도 생산성의 시대에 벌어질 지정학적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 오늘날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힘에 의한 무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무력으로 식민지를 쟁취하여 공급과 시장을 확보했던 1차 산업혁명 시기의 데자뷰다. 원자재 공급지와 거대한 소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큰 러시아와 인도 같은 티어 2 국가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4) 컴퓨터-달러의 부상

티어 2 국가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AI에 의한 경제 패권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기축통화 쟁탈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은 2026년 1월 기준 38.4조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제 불가능한 부채를 안으면서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채 이자 지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약 70%에서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56.9%까지 하락했다. 달러 불신으로 국제 금 가격이 역사상 신

“ 제조업에서는 티어 1 국가들의 선승자 독식이,
조달과 소비에서는 티어 2 국가들의 공급력과 시장 파워가
향후 다극화 시대를 규정 ”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 체제에서 퇴출했지만, 효과는 기대한 것만 못하고 오히려 그 부메랑 효과에 의해 스위프트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를 대체할 국제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내부 교역 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기존 35%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러시아는 브릭스 역내 무역에서 90% 이상을 자국 루블화나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아직은 무너질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해법을 찾아냈다. 1971년 제조업 붕괴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간인 금본위제를 포기할 때 금 대신 중동의 석유를 달러에 연계시키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했다. 1980년대 중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의 위기는 흑자국인 일본과 독일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플라자합의를 통해 극복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금, 석유에 이어 컴퓨팅 파워, 즉 AI를 달러와 연계시키는 이른바 컴퓨터-달러(Computer-Dollar) 체제가 제안되고 있다. 2025년 12월 8일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발표한 보고서 「AI 혁명을 달러 지배로 전환하기(Turning the AI Revolution into Dollar Dominance)」⁷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핵심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AI 칩 수출과 달러 결제의 연계다. 미국산 최첨단 AI 칩(GPU 등)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이를 활용해 만든 AI 서비스나 제품을 제삼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달러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도록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것이다.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은 일회성 수익에 그치지만, 그 칩으로 생성된 서비스(자율주행, 신약 개발 등)의 결제권을 장악하면 수십 배의 달러 수요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식 결제 수단으로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다. 2025년 7월부터 발효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근거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AI 서비스의 표준 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결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달러 결제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게 되어 달러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하되 그 달러로 국채를 매입하게 하여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가치 절하를 막았던 페트로 달러 시스템과 유사하다. 셋째, 경제 안보 우산 제공이다. 컴퓨터-달러 체제에 동참하는 우방국들에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우선 공급, AI 안전 프로토콜 참여,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부터 보호 등 포괄적인 경제적·안보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페트로 달러 체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급부로 미국의 안보 우산으로 들어간 시스템과 유사하다.

“미국이 페트로 달러를 대신하는
컴퓨터-달러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인도의 협조가 필요”


미국의 이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인도 등 중간국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두 국가는 ‘반(反)달러 AI 연산 동맹’을 결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AI 달러를 자국의 AI 발전을 위한 외환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저렴한 데이터센터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무기로 중국의 칩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결합한 페트로-컴퓨트(Petro-Compute) 모델을 만들어 달러 결제권 밖의 국가들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거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만 집중하는 중국과는 달리 자국의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AI 기술(엔비디아 칩 등)이 필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군사-에너지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고수하는 동시에 자국의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자체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UPI)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인도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강요를 ‘디지털 식민주의’로 규정하며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인도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자간 결제 시스템을 택한다면, 컴퓨터-달러의 글로벌 표준화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AI 기반의 제조 자동화(테슬라 직선)와 차세대 기축통화 패권(컴퓨트-달러 대 반달러 동맹)을 놓고 격돌하는 티어 1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패권 경쟁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인도와 같은 티어 2 국가들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AI 자동화 공정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거대 소비 시장의 확보라는 ‘시스템 외부의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 강국이자 거대 시장인 티어 2 국가들은 미·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면서, 다극화된 세계의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적인 타협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종결된다면, 이는 미·중 중심의 다극화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변수를 던질 수 있다. 특히 양국이 북극 공동 개발에 합의할 경우, 북극항로의 장악과 천연가스·희토류 등 막대한 미개발 자원의 공유는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홍색 공급망’에 대응해 러시아라는 강력한 자원 파

“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적인 타협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종결된다면, 이는 미·중 중심의
다극화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변수가 될 것 ”

트너를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동시에 다극화 체제 내에서 미국 중심의 코어 5 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하더라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북극 개발 기술과 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 자원 소비처와 결제 시스템(반달러 동맹)을 지렛대 삼아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의 몸값을 높이고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러시아는 다극화 체제 내에서 단순한 진영의 일원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패권의 한 축으로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실용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질서 전환 속에서 한국 또한 생존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기술 주권 기반의 한국형 '테슬라 직선'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생산의 국지화 경향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AI 기반의 제조 자동화 플랫폼인 '모듈러 미들'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 제조를 넘어 핵심 모듈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극화에 최적화된 유연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단일 동맹에만 의존하느냐, 아니면 미·중 G2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냐는 시야보다 좀 더 넓게 다극화 현실을 보고 티어 2 국가들을 시야 안에 뒀야 한다. 또한 다가올 컴퓨터-달러와 '현지 통화 결제' 사이의 경쟁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금융·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망의 다각화가 시급하다.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비하여 특정국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고, 북극 항로 개척이나 동남아·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친숙했던 '평평한 운동장'이 더는 아니다. 기술 패권과 지정학적 실용주의가 결합된 이 냉혹한 다극화 시대에 한국이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강대국 간의 '빨대 효과'에 희생되는 주변부 경제로 전락할 것이다. 

- 1 '토지 조반니 아리기. 「장기 21세기」. 서울: 그린비, 2014.
- 2 <https://2009-2017.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10/09/146917.htm>
- 3 https://www.chinadaily.com.cn/a/202505/16/WS6826a641a310a04af22bfcee.html?utm_source=chatgpt.com
- 4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which-ties-will-bind/?utm_source=chatgpt.com
- 5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121080741078?utm_source=chatgpt.com
- 6 손재권(더밀크 대표)의 CES2026 브리핑 자료 "AI 컨버전스 시대 산업지도가 바뀐다!"
- 7 <https://www.csis.org/analysis/turning-ai-revolution-dollar-dominance>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전망과 젤렌스키 정부의 내부 위기

이반 카차노우스키 오타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협정을 통해서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든 종결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전쟁을 종식할 평화협정이 체결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변화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정을 통해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고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알래스카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푸틴 대통령과도, 미·러 협상을 담당하는 푸틴 측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와도 평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측 대표들과도, 러·미 협상과는 별개이지만 연관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봄,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르렀던 이스탄불 평화협정을 미국과 영국의 요구에 따라 포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며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이스탄불 평화 협상은 잠시 재개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는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가 참여하는 삼자 회담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28개 항 평화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28개 항의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우크라이나 태생)와 우크라이나 측 대표 루스뎀 우메로우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시된 해당 계획안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핵심 내용에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포기 및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조치, 우크라이나 내 나토 병력 배치 금지, 우크라이나군 병력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영토 양보가 포함됐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권리는 유지됐다.



키이우 태생으로 러시아직접투자기금 CEO이자 대미 협상 책임을 맡은 키릴 드미트리예프 © 위키피디아

이 평화 계획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전역(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을 러시아 영토로 사실상 인정하는 구도를 상정하고 있었다. 동시에 현재 전선을 따라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점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사실상 인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해당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뒤 이를 러시아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대신,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의 통제권은 전선을 따라 동결되도록 명시됐고, 이는 접촉선(Line of Contact)¹을 기준으로 한 영토 귀속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점령 중인 일부 지역을 우크라이나 측이 통제하도록 반환기로 되어 있었다. 러시아가 점령·병합한 지역에 있는 자포리자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하게 분배받게 될 것이었다.

28개 항 계획은 또한 러시아 제재의 단계적 해제와 러시아의 G8 복귀 초청도 명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동결 자산 1,000억 달러는 미국 주도의 전후 재건 사업과 우크라이나 투자에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는 미국에 귀속된다. 나머지 러시아 동결 자산은 별도로 미·러 공동 투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비 통제 조약. 특히 2026년 2월 5일 만료 예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연장할 것이었다.

트럼프 평화안에는 협정 서명 100일 후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나치 이념과 활동'을 금지하고,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 정교회 문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의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우크라이나가 받은 지원에 대한 전

“트럼프의 28개 항 계획안에는 러시아의 주요 요구 사항 대부분이 반영돼 있어”

면적 감사와 전쟁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조항은 이 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의 전시 행위에 대해 전면적 사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대체됐다. 또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28개 항 계획안에는 러시아의 주요 요구 사항 대부분이 다양한 수준으로 반영돼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탈나치화(denazification)’, 러시아어 및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권리 보장, 크림반도와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합병에 대한 미국의 인정,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지역 철수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이 계획안은 알래스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도달한 잠정 합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헤르손과 자포리자주 지역의 전선을 동결하고, 앞서 요구했던 두 지역 전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은 알래스카 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회담 후 28개 항 합의안에 이를 포함했다.

한편, 이 계획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나토 비가입에 더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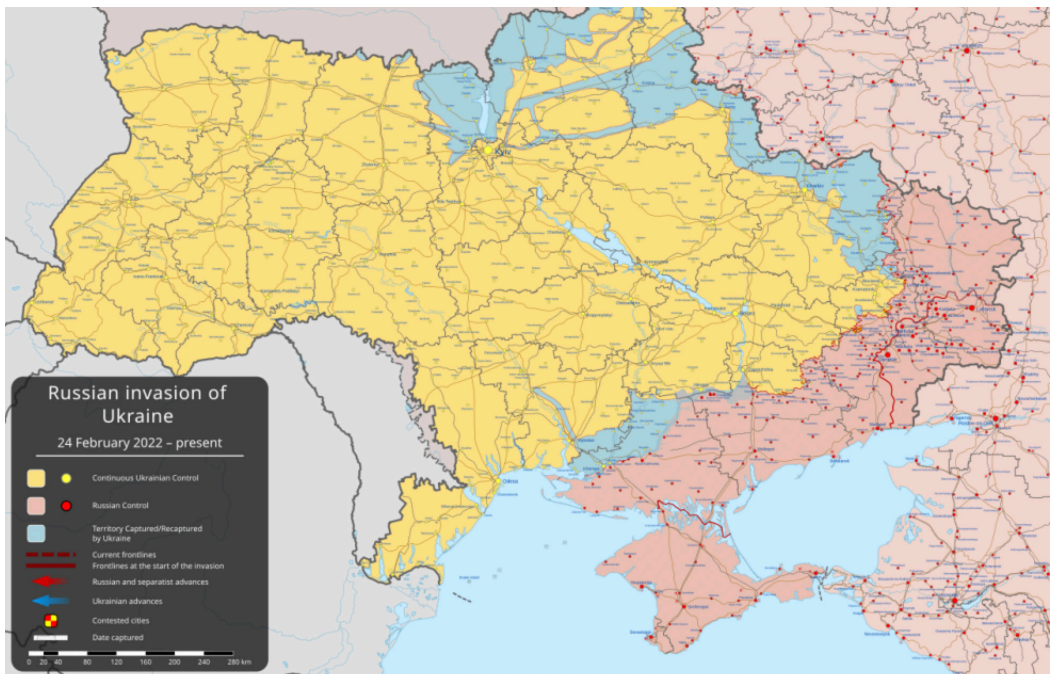
해 우크라이나 중립화까지 모두 포함했던 2022년 이스탄불 평화 협상 틀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또한, 러시아가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조항 역시 이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 20개 항 평화안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EU 지도자들은 트럼프 평화 계획의 일부 핵심 조항을 거부하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 이후 미·우크라이나 간 협의를 거쳐 28개 항 계획 초안은 수정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뒤이어 '20개 항 평화 계획'을 공개하며, 이 새 계획안이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20개 항 계획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중립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도네츠크주의 잔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등 러시아의 일부 핵심 요구 사항도 제외됐다. 대신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에서는 접촉선을 동결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미콜라이우주, 수미주, 하르키우주에서 점령 중인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게 되어 있었다.

새 계획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규모 상한은 80만 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미국과 나토, 해당 합의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²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투자에 필요한 8,000억 달러는 미국과 유럽의 공공·민간 자금을 통해 조달될 것이며, 자포리자주 원자력발전소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20개 항 평화안을 거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계획이 분쟁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러시아 역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5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지도 © 위키미디어

2026년 1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은 평화협정과 관련해 단 한 가지 쟁점만이 남아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라는 러시아의 요구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과 8,0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번영 계획'을 각각 다루는 별도의 합의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에 이뤄졌으며, 두 문서 모두 서명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평화 협상의 진전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한편, 2026년 1월 6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종전 이후 프랑스와 영국, 기타 서방 국가들로 구성된 다국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는 의향 합의서에 서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거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군 병력 규모가 70만 명으로 유지될 것이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무기 제공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의 '레드라인'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평화협정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유럽 국가들, 러시아 사이에 중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철수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봐도 그렇다.

돈바스 장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러시아가 돈바스를 향한 요구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지역은 크림반도와 함께 가장 친러시아적, 친공산당적 지역이었다. 정당과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 성향, 외교 정책에 대한 지향,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의 제2국어 지위 인정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필자가 의뢰하고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가 2014년 4월과 5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돈바스 주민 다수는 독립, 러시아연방 귀속, 연방제 우크라이나 내 자치권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4%에 달했으며, 유보 응답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61%로 올라갔다. 러시아는 돈바스 내전 기간에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부 지역에서 수립된 친러 성향의 자칭 분리주의 공화국들을 지원했으며, 2014년 8월과 2015년 1~2월에는 군사개입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며칠 전 이들 지역의 독립을 인정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돈바스를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와 함께 병합했다.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키는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는 안보 보장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보장을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했다. 다만 그 평화협정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안보 보장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전쟁의 양상이 보여주듯,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와 덴마크, 캐나다, 이란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온 행보와 발언 역시 미국의 합의나 보장이 하루아침



2014년 4월 6일 도네츠크주에 운집한 친러시아 시위대 © 위키피디아

에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경우,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이나 8,000억 달러 규모의 ‘번영’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2026년 1월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나토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거부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안보 보장에는 러시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에서 현재의 반러시아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나치’ 정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규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나토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 ▲ 미국의 지원 아래 서방 국가 군대의 배치, ▲ 전시 규모를 유지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존속과 서방의 무기·재정 지원 지속, ▲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는 나토 제5조와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은 물론이고, 나토 회원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 국가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파병되는 것은 ‘레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로 배치된다면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고려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언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서 밝혀 왔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미국의 보호 보장 없이 자국 병력을 파병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여전히 이런 보호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한다면 핵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직접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파병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EU는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의 장래 가입 가능성에 유보적이던 태도를 전쟁 중에 전환해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의 신속 가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이는 투표권이냐 보조금과 같은 정회원국의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제한적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27년까지의 신속 가입 구상은 독일과 헝가리,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일부 EU 국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시도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종전을 미룰수록 커지는 우크라이나의 대가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푸틴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제한적이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쟁을 종결할 힘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종전은 미국 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세력,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서방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러시아를 약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계속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지원 주체로 떠올랐다. 다만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던 계획은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EU는 2025년 말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정과 전쟁 수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시도한 이반 카차노우스키의 저서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학살』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기원』 © 슈프링거(Springer) 웹사이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중재자로 내세우며,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든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후원국으로서, 정보 제공과 무기·군수 물자 지원을 미국의 직접 지원과 나토 회원국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속국이며 젤렌스키는 대리 세력인 것처럼 다룬다. 필자가 새로 집필한 오픈 액세스 저서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기원』(2026)과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학살』(20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2014년 유로마이단 과정에서 발생한 마이단 학살과 암살 기도 등 서방의 지원을 받은 폭력적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종속국이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 이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나토와 러시아가 벌이는 대리전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평화 계획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양보안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으며, 서방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대리전에서 러시아를 꺾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 부분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전면적 붕괴와 항복을 막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향후 어떤 평화 계획이 나오더라도, 그 조건은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어떤 평화 계획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조건은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불리할 가능성이 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대한 입장은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도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2026년 3월까지 평화 협상을 타결하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최소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전쟁을 지속하려 한다. 미국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경제와 같은 국내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에 반대하며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계속하려 한다.

만약 평화 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화하여 전쟁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군사력을 통해 도네츠크주의 남은 지역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를 고려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우위와 확전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는 특히 가용 병력, 장거리 미사일, 드론, 포병, 공군력 등 무기 체계 대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게다가 러시아는 돈바스와 자포리자주 지역에서 몇 곳의 주요 발전소와 대부분의 탄광을 장악했으며, 2026년부터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발전 시설과 가스 생산 시설 대부분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 이처럼 러시아가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조건에 부합하는 평화 협정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4년간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신원이 확실히 확인된 수치만 최소 20만 명에 달한다. 이 추정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2026년 1월 29일까지 우아로스시스(Ualosses) 웹사이트가 실명으로 확인한 전사자 및 전투 중 실종자 17만 5천 명 이상의 명단에 근거한다. 이런 사상자 수치는 우아로스시스의 상당한 과소 집계를 반영하여 보정됐다. 우아로스시스는 부고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공개 자료와 우크라이나 다수 도시 및 지역의 제한된 자료만을 기반으로 사상자를 집계한 것으로, 묘지 자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있는 리차키우 묘지의 전몰자 구역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웹사이트

료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러시아군 사상자를 집계할 때 BBC 러시아 지국(BBC Russian)과 미디어조나(Mediazona)가 묘지 자료까지 활용해 실명 확인을 진행한 방식과 대비된다.

러시아군과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의 최소 전사자 수는 17만 5천 명이다. 이 수치는 BBC 러시아 지국과 미디어조나가 실명 확인을 통해 집계한 러시아군과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 소속 전사자 16만 5천 명 이상이라는 추정치에 근거한다. 2022년에 발생한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의 전사자는, BBC가 이들을 집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이었기 때문에, 추정치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출했다.

2026년 1월 새로 임명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남성 200만 명이 병역 기피 혐의로 수배 중이며 20만 명이 탈영병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정부는 강제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강제 동원하는 장면이 담긴 수천 개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러시아는 이 소모전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남은 지역을 점진적으로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의 다른 지역들까지 점령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이 더 오래 지속 되면, 우크라이나가 급격한 전선 붕괴라는 사건에 직면할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침공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러시아는 EU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교역 방향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전쟁을 계속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병력 면에서는, 러시아는 주로 계약병에 의존해 왔으며, 재정적 유인이나 추가적인 부분 동원령을 통해 동원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미활용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큰 침체를 겪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미국과 EU의 군사·재정 지원에 의존해 왔으나, 트럼프는 사실상 이러한 미국의 직접적 지원을 중단했다. 병력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 인구 규모가 훨씬 작고 대규모 징병 기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비해 가용한 병력 규모가 현저히 적다. 그리하여 전쟁 초기의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젤렌스키 정부는 강제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아마도 돈바스 전체와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일부 지역을 잃는 우크라이나의 부분적 패배가 전쟁의 가장 유력한 결과일 것이다. 거의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고 합병할 가능성은 낮다. 서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반러시아 성향이 강한 지역이며, 현재 러시아군의 규모로는 우크라이나 전체, 특히 키이우와 하르키우 같은 주요 도시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쟁의 가장 유력한 귀결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동남부 영토 일부를 상실하는 형태의
부분적 패배 ”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젤렌스키 행정부

한편, 젤렌스키 행정부 내부의 위기 역시 평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반부패국은 2025년 가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까운 사업·정치·개인적 관계자 여러 명과 그의 집권당인 ‘국민의 중’ 소속 국회의원 몇 명을 기소했다.

안드리 예르마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부상했으며, ‘공동 대통령’에 가까운 역할을 맡아 온 인물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미국과의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었던 예르마크도 국가반부패국의 자택 수색 이후 결국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의 후임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국장인 키릴로 부다노우가 임명됐다. 서방 언론에 따르면 예르마크는 과거 여러 차례 부다노우를 해임하려 했으나, 미국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래는 전쟁에 달려 있다. 그는 계엄령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취소하고, 선거 없이 집권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종전이 이뤄진다면, 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축출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새롭게 등장할 후임자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은 젤렌스키를 축출하거나 평화 협정을 저지할 힘을 지녔다. 필자의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극우 세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상대적으로 친러 성향이었던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데 관여했으며, 젤렌스키가 선거 운동 중 약속했던 돈바스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아조우 운동과 C14 같은 네오나치 성향 단체들, 그리고 프라비섹토르, 브라트스트보, 스보보다 같은 급진 민족주의 단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특히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군부대, 국민수비대, 군사정보부대를 크게 확장함으로써 세력을 강화했다.

극우 세력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젤렌스키는 네오나치 및 극우가 주도하는 이러한 군사 부대들을 미화하고 부각시켰다. 예컨대 그는 나치 독일과 협력하고 유대인·폴란드인·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던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OUN)과 우크라이나봉기군(UPA)의 역사적 계보마저 미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들을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로 제시하며 그들의 극우 이념을 부정하거나 생략했다. 이런 이유로 젤렌스키는 트럼프 계획의 “모든 나치 이념과 활동은 거부되고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트럼프 계획에 존재하는 ‘나치 이념과 활동 금지’ 조항은 러시아가 요구해 온 이른바 ‘탈나치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이 국내에서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나치 또는 신나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보스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적 존속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런데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여전히 무조건 공개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공격적 발언이나 부패 문제, 비민주적

“트럼프 평화안도

과거 이스탄불 협상안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불리하고,
이스탄불 협상안은 과거 민스크 합의보다 더 불리해”

행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지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 운명을 걸었고, 자신들의 선택이 실패였다는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승산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판돈을 걸었다가 실패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지금 제시된 조건의 평화협정안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가 거의 확실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앞으로 제시될 어떤 평화협정도 트럼프의 평화 계획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불리한 조건을 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트럼프의 그 계획조차도 이전 이스탄불 협상안보다 더 불리하고, 이스탄불 협상안은 또 그 이전의 민스크 합의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었다. 평화협정 없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더 많은 영토가 상실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기타 핵심 기반 시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더 많이 파괴될 것이다. 

- 1 교전 당사국 간 군사력이 실제로 대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제 경계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편집자 주).
- 2 나토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하여 공동 방어하는 집단방위 조항(편집자 주).



2015년 2월 제2차 민스크 협정을 위해 모인 벨라루스, 러시아,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 © 위키피디아

소설가 아나톨리 김

자유를 추구하는 숲속의 은둔자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전 미국에서 유학할 때다. 다니던 대학교 슬라브어문학과에서 현역 소련 작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노비 미르』 편집장 세르게이 잘리긴, 농촌문학의 대표자 발렌틴 라스푸틴 같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문단에서 주목받는 아나톨리 김이라는 한국계 작가가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한껏 상승했던 러시아 문학의 위상은 소련 해체와 함께 가파른 내리막으로 내달았다. 미증유의 충격 속에 일부 작가는 국외로 떠났고, 한 러 수교 후 한국 대학에서 한동안 강의하던 아나톨리 김 작가와 친분도 그래서 멎게 됐다.

그 무렵 우리 언론에서 이 작가를 화제의 인물로 조명했고, 또 몇몇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으나, 작가의 창작에 대한 한국 독자의 반응은 정작 조용하기만 했다. 유명한 작가라는데, 그의 작품에 관한 언급은 극소수 전문가의 연구 논문이 고작이었다. 한국에 머물면서 집필했던 『켄타우로스의 마을』 이후 후속작들은 러시아 독자들의 시야에서도 점차 멀어져갔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매 작품에서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 '삶의 역사' 대신에 '정신의 역사'를 궁구하며 러시아 문학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계승해 왔다. 한국적 본능과 미적 감각으로 바라본 인간, 자연 풍경, 그리고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러시아 예술 언어로 구현하는 창작 작업을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이 노년의 작가를 지난 12월 초 모스크바 근교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로 찾아갔다.

러시아에서의 삶, 최근의 집필 활동,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구한 작가 정신의 핵심 개념 등에 관한 얘기를 듣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나톨리 김의 문학에 다가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도, 솔직한 대화 중간중간에 작가의 신비로운 문학 세계 내면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흥미로운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들로 벽면을 장식한 아늑한 거실에서 진행한 작가와의 인터뷰를 1월 호 「RIO 초대석」에서 소개한다. 작가를 카메라에 담는 일은 콘스탄틴 코코시킨이 맡았다.



페레델키노 작가 집에서 만난 아나톨리 김 © RIO

작가로 데뷔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단편, 중편, 장편 소설, 희곡과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시를 발표했다. 작년에는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소설가 아나톨리 김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RIO 독자들은 궁금하다.

모스크바 남서쪽의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에 살고 있다. 러시아작가연맹에서 관리하는 임대 주택인데 시인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가 한때 사용하던 집이다.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라잔의 메쇼라숲속 호수 인근의 개인 다차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이곳 페레델키노에서 지낸다. 주변 환경이 예전 같지는 않아도, 작가 마을은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이다. 바깥 세상일과는 거리를 두면서 수년째 아내 릴리야 블라디미로브나와 함께 은둔자의 삶을 살고 있다. 예순다섯 살이 되던 해에 친구와 지인들을 초대하는 모임을 열고 이제부터 외부 활동은 접겠다고 선언했다.

옛적에 동양의 예술가들이 노년을 살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나이가 많이 든 걸 느낀 예술가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에서 자기 내면에 침잠하는 문화적 과정에 몰두하지 않나. 창작을 멈춘 건 아니고, 좀 더 자유로운 상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 여태껏 살 기회를 주었고, 예술에서 뭔가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내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누구에게 팔릴지 고민하지 않고, 또 검열 같은 건 의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 내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누구에게 팔릴지 고민하지 않고, 또 검열 같은 건 의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

“ 생애 최고의 작품들은 시골 마을의 이 조그만 목조 가옥에서 탄생 ”

집 앞에 작은 정자가 서 있다. 날씨가 좋으면 편안하게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는가?

오랜 취미 중 하나가 목공 일이다. 40대 때 라잔 지역 메쇼라의 외딴 마을 네마토보에 살던 시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배웠다. 숲속 마을 남자들은 대대로 목수 일을 하며 살았다. 작가로 제법 명성을 얻었을 즈음, 그 마을의 낡은 통나무집 한 채를 매입했다. 시골에 처박혀 혼자 창작에 전념할 작정이었다. 처음에는 모스크바에서 온 작가라는 인물이 지붕에 올라가 수리 작업하는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는데, 내 손으로 보란 듯이 통나무집을 멋지게 수리해 냈다. 생애 최고의 작품들은 시골 마을의 이 조그만 목조 가옥에서 탄생했다.

네마토보에서 『다람쥐』, 『아버지 숲』 같은 대작을 완성했다. 나중에는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 풍광 좋은 청정 지역 호숫가에 이 층짜리 다차를 마련해서 매년 여름과 가을을 거기서 보내고 있다. 사람 발길이 뜸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작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스크바 시내의 숨이 턱턱 막히는 생존의 공간이다. 비단 모스크바뿐 아니라, 파리나 뉴욕, 서울처럼 엄청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자연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야 정신이 맑아진다. 특히 시골에 살면서 나는 러시아인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뒤엉켜 북적대는 도시에서는 그런 영혼을 느낄 수 없다. 예로부터 러시아적 정신세계의 뿌리는 드넓은 들판과 거기 사는 순박한 농민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너그러운 마음, 풍요로움 같은 특징은 끝없이 펼쳐진 들과 숲, 수량이 풍부한 강 등의 러시아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계절의 변화 같은 연중 주기와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내가 추구하는 문학은 어떤 세대나 시대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보적 경향을 추구하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나에게 문학 창작은 ‘언어’와 관련된 어떤 위대한 비밀을 탐구하는 작업과 같다. 숲속을 걷다 보면 온갖 덩불과 나무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체임을 깨달으며, 푸르름이 깃든 영혼도 감지한다. 자연 속 모든 것은 살아 있고, 나 자신보다 더 생기가



1980년대에 대표작들을 집필한 네마토보 마을 목조 가옥 © RIO



라잔 메쇼라 지역 호숫가에 있는 작가의 다차 © RIO



다차 주변을 산책하던 중 풀밭에 앉은 아나톨리 김.
호수 건너편으로 작가의 다차가 보인다. © RIO



다차 인근 숲에서 채취한 버섯 바구니들 옆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작가의 다차가 보인다. © 아나톨리 김

넘치는 존재라는 걸 실감한다. 호수 수면, 숲, 하늘의 구름으로 둘러싸인 내가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 인간의 언어 또한 살아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살아 있는 영혼이 살아 있는 언어와 접촉할 때 비로소 창작이 시작된다. 나의 경우, 글은 머리카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살아 있는 연결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일에 빠져들면 마음이 억눌리지 않고 편안해진다. 한없이 풍요로운 러시아 숲과 자연은 내 창작 에너지의 무한한 저장고다.

단편 소설로 출발해서 중편 『연꽃』과 장편 『다람쥐』를 발표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일약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다. 『연꽃』, 『다람쥐』 같은 소설은 당시 소련 문단의 분위기로는 전혀 생소한 작품이었다. 어느 중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즉 자신에 대해 쓰려고 한다. 이는 삶의 역사가 아닌 정신의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작가의 주된 관심을 밝힌 바 있다. 그 시대 소련 문학 주류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정신의 역사’를 탐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진실로 인간이 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됐다고 믿기에, 인간 정신의 끝없는 깊이를 탐구하는 게 항상 문학의 중심 과제였다. 자신의 정신사를 탐구한다는 건 결국 자신 안에서 가장 높은 정신적 근원을 찾는 일이다. 이 엄청나고 중요한 작업에 비해 이른바 내 삶의 역사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삶은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사실 소비에트 체제에서 삶이란 애초부터 파멸의 운명을 타고난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다. 당시에 주류를 이루던 소련 문학의 가치관을 철저히 부정할 소설들이 널리 알려지고 큰 관심을 끈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입증한다.

“자신의 정신사를 탐구한다는 건 결국
자신 안에서 가장 높은 정신적 근원을 찾는 일이다.
이 엄청나고 중요한 작업에 비해 이른바 내 삶의 역사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삶은 사소한 것에 불과”



인터뷰 중인 아나톨리 김 © RIO

『아버지 숲』, 『켄타우로스 마을』, 『바흐 음악을 들으며 버섯 따기』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 작품들로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열었다. 각 작품은 나올 때마다 독창적 언어와 실험적 구성 기법으로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작가들이 대체로 하나의 중심 관념을 유사한 문학 형식으로 변주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전혀 생소한 형식의 창작으로 표현하면서, 아나톨리 김의 문학이 일반 독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 그리고 창작의 신조는 무엇인가?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작품은 독자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들이 작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문학의 복잡성과 혁신적 특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독자들은 많지는 않았어도 항상 있었다. 이 독자들은 내 인생 여정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공동 창작자에 해당한다. 작가와 독자라는 두 존재는 다르면서 하나로 결합하는 창조적 통합체이기 때문이다. 관객 없는 예술가가 존재할 수 없듯, 독자 없는 작가는 있을 수 없다.

한편, 내가 추구하는 다양한 철학적, 문체적 시도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고, 기존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의미에 관한 부단한 탐구를 허락하는 하늘로부터의 선물이라 여긴다. 앞서 도달한 자신의 성취와 발견을 반복 활용하는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문학적 신조다. 인간 현상은 ‘지고의 원리’에 접근하려는 끊임없는 영적 진화 운동이며, 따라서 나의 문학 역시 더 높은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1990년대 초 발표한 『켄타우로스 마을』은 소련 제국의 붕괴를 암시하는 풍자 소설로 읽힌다. 이 작품을 아나톨리 김 문학의 주된 흐름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팸플릿 소설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세상에서 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로테스크 소설 『켄타우로스 마을』은 실제로 소련 제국의 피할 수 없는 붕괴에 대한 은유적

풍자 소설로 구상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전체주의적 단일 질서에 따라 구축된, 영성이 완전히 사라진 공백 상태를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규범’으로 채운 사회는 역사 무대에서 절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로마나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처럼 가장 막강했던 제국들이 빠른 속도로 역사에서 소멸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 위에, 노골적인 물질주의가 존재의 법칙으로 작동했고, 무절제한 물질적 쾌락의 소비를 삶의 주된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천박한 물질주의에서 비롯된 육체적 쾌락과 육신의 만족에 탐닉하는 삶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소련 제국이 그랬고, 그와 유사한 징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오나 섬』, 『낙원의 기쁨』, 『사랑 ‘라’』 등이 출간됐다. 소수 연구자와 비평가가 관심을 보였지만, 아나톨리 김의 문학은 이 시기에 일반 독자로부터 더욱 멀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묻혀 있던 작품이 미래의 독자들에게 의해 다시 발견되고 새롭게 읽히는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당대 독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작가는 외로운 존재다.

사실이 그렇다.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 쓴 작품들은 아직 넓은 독자층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래도 미래에 이 책들이 적극적인 독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 문학의 주류에서 자신이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외로움으로 인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명상에 잠긴 은자의 삶에 가깝다고 여긴다. 그런 사람이 문학의 주류에 진입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창작의 가치를 기성 문단의 ‘현대적’ 흐름과 굳이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는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가치의 증식 작업에 나설 이유가 없다.

아나톨리 김 문학에 다가가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 상태, 그리고 작가 고유의 정신세계에 접속할 수 있



인터뷰 중인 아나톨리 김 © RIO

는 일종의 코드가 필요할 것 같다. 여러 작품이 한국어 번역으로 출간됐는데 독자들의 반응은 너무 잠잠했다. 그나마 한국어 번역의 자전 에세이가 작가에 대한 입문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미래의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내 작품이 30개 언어로 번역됐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현지 독자들 반응이 꽤 좋았던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아방가르드 작품인 『다람쥐』, 『아버지 숲』, 『온리리아』 등이 번역됐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내 문학 정신의 뿌리에 해당하는 고국에서 책이 번역된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는데 그만큼 실망도 컸다.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한국의 번역가들이 그때까지 접했던 러시아 문학과는 전혀 다른 내 작품의 전위적 언어와 구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걸 한국어로 재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다. 출판사 계약 기간에 맞춰 번역을 끝내야 하는 시간상 제약도 번역가에게 많은 부담이 됐을 것 같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충분한 이해와 교감, 원작의 의미와 형식에 대한 충분한 음미, 그리고 한국의 예술 언어로 재창조하는 작업 등이 원만하게 이뤄지기에 당시로서는 여러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느 잡지에 연재했던 자전 에세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제법 뜨거웠다. 잡지사도 편지를 보내온 독자도 제법 많았다. 『초원, 내 푸른 영혼』, 『나의 삶, 나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두 권의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직접 들었다. 그 계기로 내 소설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전 에세이가 잘 읽힌 이유는 텍스트가 전통적 방식으로 쓰인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이야기’와 달리, ‘정신의 역사’를 다룬 소설은 영혼의 울림에 대한 체험이 없이, 그저 인지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은 지금 나의 소중한 한국에서 책들이 새롭게 번역되어 읽혔으면 하는 희망을 던지시 품어본다. 그동안 러시아 문학 연구 수준도 더욱더 높아졌고, 또 까다로운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예술 텍스트로 재현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전문가들이 등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러시아어로 표현한 내 작품들이 한국 독자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작품 세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 한다. 1980년대 초 발표한 중편 『구린의 유토피아』에 주인공이 하늘을 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작가의 그림에서도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티프를 자주 볼 수 있다. 경험 세계의 법칙을 벗어난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상태는 어떤 의미를 갖나?

내 소설에서는 날개 없이도 날 수 있고, 다양한 세계와 시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이 가능하다. 공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아갈 수는 있다. 그래서 작품 안으로 독자를 초대해서 나와 함께 맘껏 날아보기를 원한다. 꿈속에서 우리는 아주 높이 날아오를 수 있고, 한없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꿈속에서 비행은 그저 날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믿기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화경처럼 보여주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미소를 통해 그 사건들을 그려낼 뿐이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나’와 대문자로 표기한 ‘우리(MY)’라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소설 『연꽃』에서 그렇듯 작중 인물은 내적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추상적 전체, 이른바 ‘우리’로 통합된다.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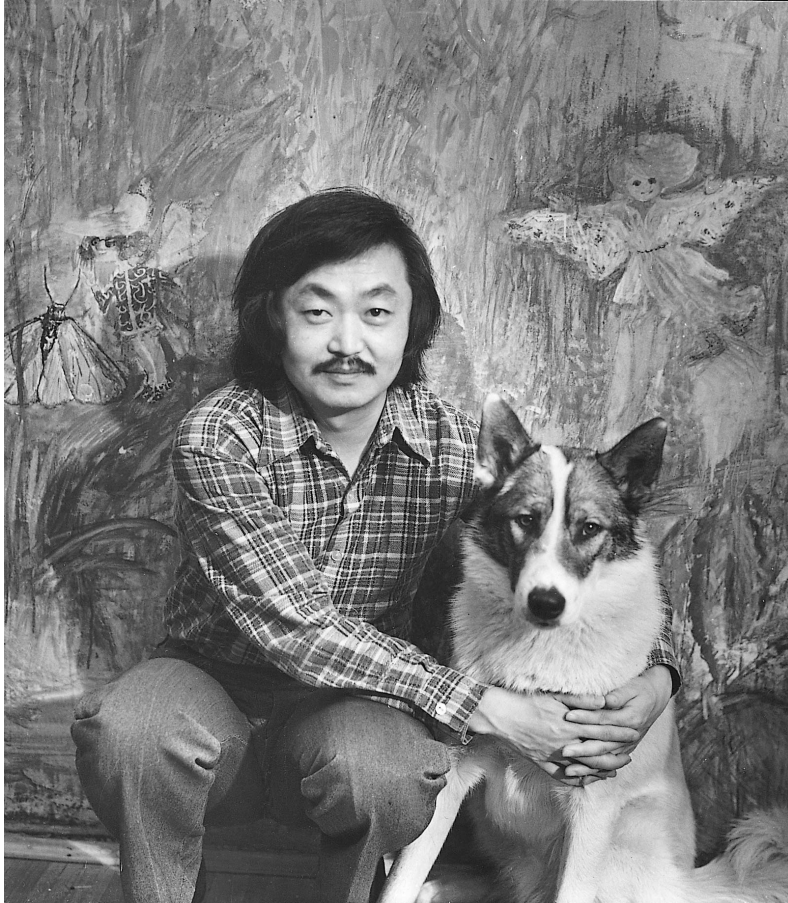


충청남도 천리포 해안에서 그린 작가의 수채화 © RIO

적 의미의 집단적 ‘우리’와 대문자로 쓴 작가의 ‘우리’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 의미의 ‘우리’는 사람들 다수를 일컫지만, 대문자로 쓴 작품 속 ‘우리’는 인류의 정신적 일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그 끝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한의 존재다. 작품 속 주인공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로운 ‘나’에서 포괄적인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로 합류하게 되며, 때로는 소설 속 여러 인물의 목소리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영적 존재가 ‘우리’라고 표현된다. 그리고 『아버지 숲』에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정신계 사이를 서로 잇는 신비의 힘을 함축한다. 이러한 사고는 러시아 자연철학과 우주론에서 영향받았다.

“ 대문자로 쓴 작품 속 ‘우리’는 인류의 정신적 일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그 끝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한의 존재 ”



자신이 그린 벽화 앞에서 라이카 품종의 애견과 함께한 젊은 시절의 작가 © 아나톨리 김

이야기 줄거리가 아주 단순하고, 선형적 시간 개념이 부재하는 가운데 아주 복잡하고 낯선 구성으로 다른 작가에게서 볼 수 없던 낯선 신비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나톨리 김 문학의 특징이다. 작가에게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시간은 물질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에너지를 지닌 것도 아니다. 운동 벡터가 없고, 어디서 흘러나와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시간은 영원의 동의어이다. 영원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작품에서 시간의 선형성을 제거했고, 삶 속의 사건들을 시작에서 끝 방향으로 혹은 끝에서 시작 방향으로, 때로는 조화로운 다성 음악의 폴리포니 등 어떤 방향에서든 서술할 수 있었다.

물질로 이뤄진 우주, 즉 영원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물질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 물질의 움직임은 우리는 시간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 행성에서 살아 있는 물질의 움직임이 생명이다. 생명은 영원의 일부이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학예술은 생명의 이면에 해당한다.

보통의 경우, 작가는 집필을 위해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창작 노트를 만든다. 아나톨리 김 선생은 ‘변형된 의식상태에서 즉흥 연주하듯 육필로 원고를 쓴다고 했다. 구성이 복잡한 장편 『아버지 숲』도 애견 혼자만 작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시골집에서 넉 달 만에 완성했다. 본인의 창작 과정이 바실리 날리모프가 말하는 ‘연속체 의식’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날

리모프의 ‘연속체 의식’은 대체 어떤 개념인가?

단편, 중편, 장편 등 모든 작품을 사전 준비, 계획 수립, 자료 정리, 참고문헌 조사 같은 절차 없이 한 번에 즉흥적으로 창작했다. 그래서 작품마다 원고 사본은 단 하나뿐이다. 컴퓨터나 타자기 없이 노트에 손으로 직접 쓴다. 예술 텍스트 집필은 ‘연속체 의식’과 연결된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 처음엔 창작이 그런 의식 상태에서 진행되는 줄을 자신도 몰랐고, 또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복잡한 텍스트를 그냥 써 내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물리·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바실리 날리모프라는 분이 내게 연락해 왔다. 내 작품을 읽어봤는데 자신의 자연 철학 체계의 원리에 따라 내가 창조한 문학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

날리모프의 이론 체계에 따르면, 지구라는 행성은 1) 암석권(Litosfera) 2) 대기권(Atmosfera) 3) 수권(水圈, Akvosfera) 4) 살아 있는 생명권(Biosfera) 5) 사람을 비롯한 동물권(Zoosfera). 6) 지식권(智識圈, Noosfera) 등 몇 개 권(圈)으로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술적·과학적 성취를 이룬 세상인 인간의 지식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모든 권역을 포괄하는 또 하나의 권(圈)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연속체 의식’의 영역이다. 이는 마치 온 행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컴퓨터 디스크와 같은 것으로, 지구상 생명에 관한 모든 정보와 구성 요소가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날리모프에 따르면, 지구에는 이 ‘연속체 의식’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역방향으로의 접속이 가능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했다. 내 문학 작품에서 그가 발견한 특징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날리모프는 내 창작 과정이 ‘연속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내 작품 속에는 직접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혹은 남이 쓴 책에서 읽은 적이 전혀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형된 의식’ 상태, 또는 영감 속에서 일어난 나도 잘



모르던 창작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시대를 앞섰던 철학자 바실리 날리모프와의 만남 덕분이다.

40세 때 러시아 정교회 세례를 받았다. 문예지에 작가의 단편이 발표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전설적인 배우 인노켄티 스톱투놉스키가 대부를 썼다. 장편 『아버지 숲』은 세례받은 후 쓴 작품인데,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문학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진정한 신앙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네마토보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소설을 쓰고 있던 어느 늦가을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대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전류 같은 게 느껴지더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나를 에워쌌다. 실재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담길 법한 그런 사랑의 두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세례받으라”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 후 모스크바로 향했고 어느 날 아침에 전화벨이 울리더니 저편에서 스톱투놉스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세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나도 함께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렇게 세례받았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전에는 내가 왜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서는 바른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장편 『아버지 숲』은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 집필하기 시작했었는데, 믿음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인류가 범한 가장 끔찍한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 소설에서 나는 영영 헤어날 수 못하고 어찌면 무너졌을 것이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소설의 결말은 기독교적 희망으로 마무리된다. 하느님이 내게 나타난 이후 그분을 따라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라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장 굳건한 신앙은 무지몽매한 시골 아낙네들처럼 믿는 것이라고 말하던 사제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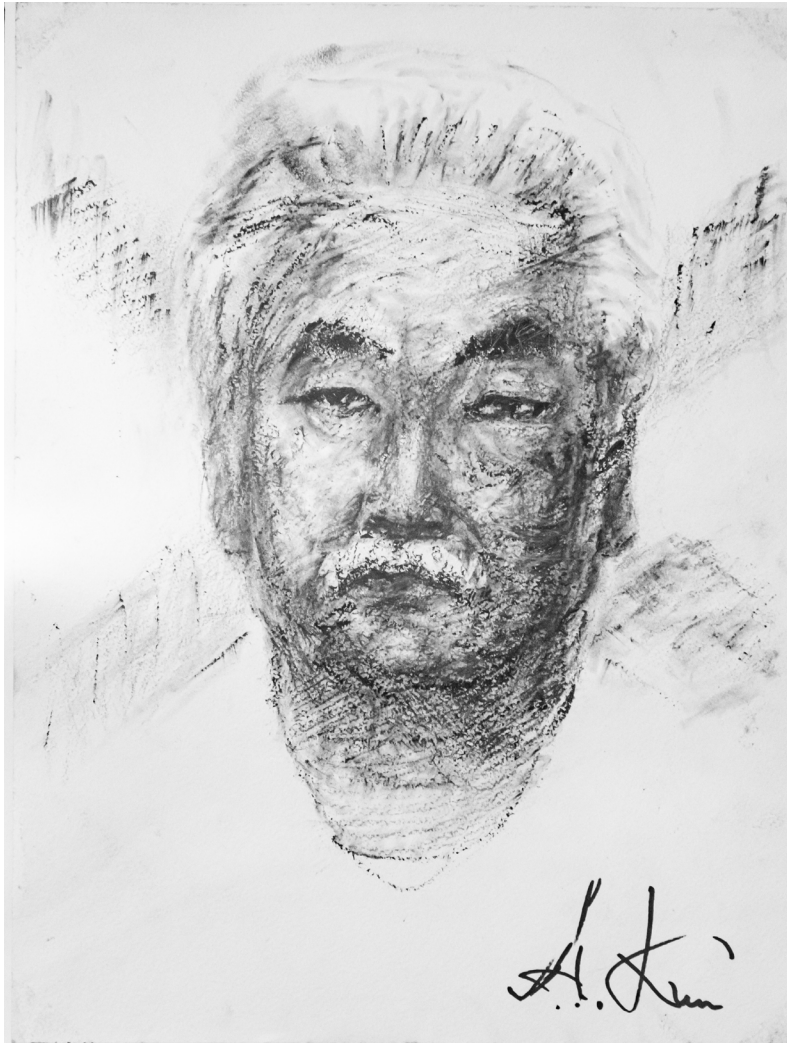
어떤 제약이나 문학적 관행, 문단의 시선 등에 개의치 않고, 아방가르드 작가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왔다. 2016년에는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신문사가 제정한 ‘비주류 문학상’을 받았다. ‘불멸의 주제에 관한 문학적 탐구’를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통에서 본인은 어디에서 있는가? 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러시아 작가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에게서 중요한 확신을 발견했다. 나는 늘 러시아 문학에서 자신을 이방인, 낯선 존재로 느꼈고, 젊은 시절에는 무릇 작가란 자기 민족의 열망을 대변하는 메신저라는 생각을 주입받았다. 순수한 한국 피를 가진 작가 지망생이 남모르는 불안감으로 압박받은 건 물론이다. 그러던 나는 플라토노프의 문학에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세대를 대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며,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

“ 진정한 신자라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장 굳건한 신앙은 무지몽매한
시골 아낙네들처럼 믿는 것이라고 말하던 사제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울리는 듯 ”



작가의 자화상 © 아나톨리 김

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작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가장 평범한 단어들조차 플라토노프의 펜 아래서는 마법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그는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누웠다”라는 문장이 있다. 극심한 좌절을 겪는 인물에 대한 묘사다. “프로는 역 외곽으로 나가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까지는 이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문장은 어떨까? 단어 하나하나는 더없이 평범한데, 작가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심오하고 생생한 기적의 힘이 탄생한다.

소설이든 예술이든, 또는 인간적 교류에서든 나는 영원히 다시 나타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인간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이 진정 흥미롭다. 이 독특함과 연관된 모든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이 독특하고 반복되지 않는 인간의 탐구 방법을 고리키문학대학 세미나에서 작가 지망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창작 철학과 예술가의 윤리 문제를 다루면서 나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각자 고유한 예술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반 부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안드레이 플라토노프가 러시아 문학사에서 빛나는 이름들이어도, 제2의 부닌 또는 제2의 플라토노프가 되는 건 소용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수강생들에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못한 건 아쉽다. “오늘도 나는 다시 갈 거다 / 삶과 거래, 시장이 있는 그곳으로 / 군가 부대를 이끌고 / 시장의 파도와 맞서 싸우려!”라고 당차게 노래한 시인 벨리미르 흘레브니코프의 패기가 나에겐 없었다.

『다람쥐』 이후 주요 작품마다 장르를 표시하는 부제가 붙어 있다. 『다람쥐』는 ‘동화’, 『아버지 숲』은 ‘비유’, 『켄타우로스 마을』은 ‘그로테스크’, 『바흐 음악을 들으며 버섯 따기』는 ‘미스터리’, 『온리리아』는 ‘메타 소설’, 『호쿠사이의 보랏빛 가을』은 ‘대화체의 우주적 연극’ 등이다. 이 부제들은 책의 첫 쪽을 여는 독자에게 던지는 화두에 해당한다. 그중에서 『다람쥐』에 ‘동화’라는 부제를 달고 푸시킨의 작품을 인용한 배경이 궁금하다.

각 소설의 부제는 작품이 담고 있는 분위기와 음악적 열쇠를 암시하는 장치다. 『다람쥐』에 ‘동화’ 소설이라는 부제를 부여한 건, 이 작품이 나올 당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 말고는 일체 출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검열이 너무 심해서였다. 검열을 피하려고 ‘동화’라는 가면을 내밀었고, 푸시킨의 시구절 “다람쥐가 노래를 부르네…”를 제사로 인용했다. 일종의 한국식 피를 낸 셈이다.



말라야 브론나야 극장 무대에 올린 드라마 『다람쥐』의 포스터 © press-reliz.livejournal.com

최근 작품에는 ‘말씀’, ‘음악’, ‘사랑’ 같은 상징적 단어가 함께 등장하곤 한다. 이 세 개념 사이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2020년에 발표한 『호쿠사이의 보랏빛 가을』에서는 회화와 언어 예술을 독창적으로 결합하는 새 시도를 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장르를 독창적 형식으로 결합한 일종의 인터미디어 예술이다. 배우자 릴리야 블라디미로브나 포노마료바가 이 작품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것도 흥미롭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한 후 당신께서 혼자임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영혼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을 주셨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여러 권(圈)에 속하는 음악을 들려주셨고, 이로써 인간은 ‘연속체 의식’을 통해 우주의 조화와 질서,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 맑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음악을 영혼으로 들을 수 있으며, 인간은 천체들이 중력의 충돌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움직이는 변함없는 우주 질서가 사랑의 법칙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법칙에 따라, 별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공전 궤도를 유지한다. 요컨대 하늘의 별들은 서로 사랑한다. ‘말씀’, ‘음악’, ‘사랑’의 세 개념은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 연결된다.

아내와의 공동 집필 작업은 자연스레 탄생했다. 내가 먼저 펜으로 원고를 쓰면, 릴리야가 텍



인터뷰 중간에 부인 릴리아 포노마료바와 함께한 작가 © RIO

스트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면서 내 글을 편집하고, 때로는 수정 사항이나 자신의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며, 어느 때는 별도의 장을 직접 집필하기도 한다. 내 문학 세계를 그녀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리키문학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85세 기념 문집 첫 쪽에서 「양봉가, 벌, 그리고 연기(煙氣)에 관한 잠언」이라는 제목의 자유시가 적혀 있다. 시인은 벌집에 향기로운 꿀을 나르는 한 마리의 벌에 자신을 비유한다. 조국의 문학에 꿀 한 방울을 남긴 작가라는 얘기다. 소설 이외에,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등에서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에 비유했는데, 평생 창작에 매진해 온 예술가의 업적을 겸손하게 표현한 건가?

한국인의 덕목인 겸손을 과감히 견어내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참 많은 작품을 썼고, 30개국 언어로 번역도 됐다. 여기 서가에 가득 꽂혀 있는 책들이 러시아와 외국에서 나온 작품집들이다. 반세기 이상 글 쓰는 일에 매달린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은 내 글이 과연 러시아 문학과 세계 문학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으려나 하는 의문도 든다. 모든 일은 미래가 결정할 것이다. 작가로 살면서 화려한 명성과 성공을 누리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잔잔한 고요함의 시간이다.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이런 시가 떠오른다.



인터뷰 중인 아나톨리 김 © RIO

난 고국에서 이해되길 원하네.
그게 안 되면 어쩌겠나,
그 땅을 비켜 갈 수밖에,
바람에 휘청이는 빗줄기처럼.

틈틈이 그린 작품들을 모아 작년에는 페레델키노 작가 정원 공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우리 시대에 인쇄된 책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문학은 이 시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오, 소중한 책을 손에 들고 단돌이 아름다운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소비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독서하는 인간이 있다. 독서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가는 좋은 종이책을 만들어야 한다. 컴퓨터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화면의 독서로는 책과 생생히 만나는 친밀감을 느낄 수 없고, 마치 가상 공간에서처럼 순간적 만남이 있을 뿐이다. 화면을 끄고 나면 독자 옆에는, 그리고 독자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사랑하는 종이책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막심 고리키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책 덕분이다”라고 한 말은 모두에게 진리다.

캠차카에 살던 어린 시절 눈보라 치던 날 읽은 인생 첫 번째 책을 기억한다. 작가가 누구 인지는커녕, 사람이 책을 쓴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때다.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동화 「용감한 매 피니스트」였다.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현실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었고,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는지는 알 바가 아니었다. 난로 옆 등유 램프 아래 앉드려 읽은 그 책의 표지는 기억에 선명하다. 읽은 책들은 살아 있는 존재처럼 나와 함께했다. 곁에 두고 읽다가 함께 잠들고, 어디서든 다시 펼칠 수 있는 책에서는 가까운 사람처럼 친밀함, 기쁨, 사랑이 느껴진다.



인터뷰를 마친 후, 오래전 전라북도 남원의 어느 마을에서 그린 풍경화를 배경으로 © RIO

이전에 자전 에세이에서 ‘한국은 어머니 나라, 러시아는 아버지 나라’라고 썼다. 유전적으로 연결된 한국, 성장하며 자란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자신의 예술 세계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나?

나의 모든 작품에는 한국인이 있다. 그리고 나의 미적 감각은 순수한 한국적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느낀 것을 원고와 화폭으로 옮기는 노력은 모두 한국인의 시선으로 이뤄졌다. 사람의 행동, 자연 풍경, 무한한 세상을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러시아어로 표현했다. 아랍인이 프랑스어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영어로 작품을 쓰지 않는가. 한국인 눈으로 관찰한 러시아 풍경은 붓질을 통해 한국적인 그림으로 나온다. 러시아어로 글을 쓰면서 내가 창조한 것은 결국 러시아어로 된 한국의 문학예술이다.

가까운 장래의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장래의 구체적 계획이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결말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예술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거의 다 마쳤다. 그래도 ‘연속체 의식’에서 뭔가 떠오른다면, 글쓰기는 계속할 거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루스키 미르’ 출판사를 통해 7권으로 된 전집을 출간하는 일이다. 출판 기획은 완성 단계이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여서 후원자를 찾는 일이 관건이다. 꼭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전집을 어머니 나라 한국에 바치고 싶다. RIO

“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루스키 미르’ 출판사를 통해 7권으로 된
전집을 출간하는 일 ”

푸틴의 성탄절 종교적 축일의 정치적 의미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옐친, 전통의 복원

보리스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은 1990년 7월 12일 공산당에서 전격 탈당하는 등 소련 해체 1년여 전부터 탈소 파격 행보와 긴급 조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공산당 치하에서 금지됐던 과거 러시아 문화 전통을 복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옐친의 정책에 따라 1990년 12월 27일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소련 시대에 금지되어 러시아인의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법률을 곧장 통과시켰다. 이윽고 1991년 1월 7일 성탄절이 1928년 볼셰비키 정권에 의해 폐지된 이후 60여 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고 이듬해인 1992년 러시아 정부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대 러시아에서 성탄절은 울리우스력을 따르는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개신교나 가톨릭 성탄절(12월 25일)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에 다시 기념됐고, 1월 1일부터 길게는 10일가량 이어지는 새해 연휴 기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기능했다.

물론, 옐친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이후 러시아연방 내 모든 구성원에게서 전폭적으로 환영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99년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밝힌 미하일 아그노프라는 시민은 1월 7일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법령의 합헌성을 의심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 조항은 공휴일 법에 적용되며, 신청인이 언급한 헌법상 권리와 자유(러시아 헌법 제14조, 제19조, 제28조 및 제29조(2항))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아그노프의 위헌 제기를 기각했다.¹ 그로부터 9년 뒤인 2008년에는 어느 이교도 단체가 정교회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이 “어떤 종교도 국가적·의무적 종교로 정할 수 없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² 이번에도 러시아 헌재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결정한 일이 러시아 의회의 권한에 속하며 헌법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곧이어 2011년에도 세르게이 둘로프라는 사람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러시아연방 노동법 조항과 종교 축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종교 단체 요청에 따라 국가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³ 신청인은 이것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세속적 성격과 종교 단체와의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도 역시 각하됐다.

이보다 20여 년 전인 1990년 말 소련 해체 직전에 러시아가 성탄절을 공식 달력에 포함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을 때도 사회 일각에서 해당 법령 채택에 반발하는 등 비슷한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바체슬라프 폴로신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은 “불세비키가 십자가를 낫과 망치로 대체했지만”, “이제 그 상징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면서 정교회 성탄절 복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⁴ 이 결정에 따라 알렉시 2세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1991년 1월 6일 모스크바 주현절 교회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했고 이날 미사는 소련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이 역사적인 날을 맞아 재개방된 교회들에서



성탄절 복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보리스 옐친(1989) © 위키피디아

“부활한 정교회 성탄절은 소련 붕괴 이후 진행된 러시아(인)의 민족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종교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능”

수많은 러시아인이 미사에 참석했고 새로 복원된 성탄절을 환영하고 축하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기쁜 순간을 맞이하여 “옅친 말고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다”라고 벽찬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⁵ 그러나 1월 7일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 복원이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는 다른 기독교인 등 타 종교 신자들을 모욕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로 일각에서 터져 나왔다. 이는 특히 이슬람 신자들이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런 불만과 반발은 소련 해체 전후 옅친의 주도로 일어난 러시아 전통 복원의 거센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찻잔 속 태풍 같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푸틴, 전통의 발명

소련 해체 직전에 공식 부활한 정교회 성탄절은 러시아인의 일상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련 붕괴 이후 진행된 러시아(인)의 민족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도 중요한 종교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능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옅친이 성탄절을 복원해 놓긴 했지만,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성탄절 미사나 기타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옅친은 성탄절이 러시아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인식하고 이 종교 축일을 복원하여 신생 러시아연방의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성탄절 미사나 다른 관련 행사에 어떤 식으로라도 참여하는 모습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실, 옅친과 성탄절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는 1991년 말부터 1999년 말까지 8년간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탄절 관련 행사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았고 관련 기사에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옅친은 매년 해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국영 TV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 국민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흥미롭게도 이때 옅친은 러시아인들이 새해맞이 풍습 중 하나로 흔히 하듯이 새해 축하 표시로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가끔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나중에 그가 지나친 음주로 자신의 건강만 해친 게 아니고 국가 운영도 망쳤다는 부정적 인식 확산에도 어느 정도 일조했을 것이다. 요컨대, 옅친이 성탄절을 복원해 놓은 일은 분명히 높이 평가받을 만했지만, 그가 성탄절 관련 의식이나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탄절이 그의 개인적 삶과 정치적 행보에 끼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옅친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그의 후임자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탄절 전야 미사에만 아니라 다른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곤 했다. 잘 알려졌듯이, 옅친은 1999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깜짝 사임을 발표하고 당시 총리였던 푸틴에게 ‘러시아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대통령 권한을

“ 푸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1월 6일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해 ”

이양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옐친이 건강상 이유를 대며 갑자기 사임하고 다음 아닌 푸틴에게 국정을 맡기기로 한 결정은 그가 퇴임 후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을 확실히 막아줄 안전장치로 푸틴이 책임자임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나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푸틴은 1999년 8월 9일 옐친 정부 마지막 총리로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고, 그로부터 다시 약 3개월 후인 3월 26일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과반인 51.44%로 승리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1월 6일 모스크바 ‘참새 언덕’에 있는 정교회 사원에서 열린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이튿날인 1월 7일 그는 ‘구원자 예수 대성당’에서 알렉시 2세 총대주교 집전으로 열린 성탄절 당일 미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성탄절 미사는 21세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이자 예수 탄생 2000년 기념으로 열리는 것이기도 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 직전에 때마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푸틴이 이처럼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성탄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보일 수



2000년 1월 6일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 위키미디어

있는 자연스러운 행보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른 한편, 2000년 1월 6~7일 푸틴이 성탄절 전야와 당일 미사에 이들 연속 참례한 사실의 배경에는 곧바로 다가올 3월 대선에서 그의 필승 전략을 위한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노림수가 정교하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인 푸틴은 1991년 소련 해체 직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으로 출발하여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총무실 부실장, 1997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1998년 연방보안국(FSB) 국장, 1999년 8월 총리에 이어 12월 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오르기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시쳇말로 벼락출세했다. 하지만 푸틴이 정보·행정기관 관료로서 뛰어난 능력과 수완을 발휘하여 최고 권력 자리까지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는 1990년대 격동기 러시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전히 대외적·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정치 신인에 가까웠다. 따라서 푸틴이 3월 말로 임박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부패 혐의 속에 병약한 상태로 사임한 옐친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려면 앞으로 러시아를 책임질 국가 지도자로서 친근하고 든든하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제한된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조성하여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되는 새천년 첫 성탄절 행사 참석은 정치 신에 푸틴의 대중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널리 유포하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어 다가올 3월 대선에서 지지표를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푸틴은 옐친으로부터 갑자기 떠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했고, 그와 동시에 곧이어 있을 대선에 나가 승리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 면모를 단기간에 널리 홍보하여 자신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필요했다. 그리고 푸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단 며칠 만에 행운처럼 찾아온 그런 기회를



1999년 12월 31일 옐친이 푸틴에게 대통령 휘장을 전달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

“ 푸틴이 성탄절 미사에 참석하여 전국 생중계 방송과 뉴스의 중심에 서서 국민적 시선과 관심을 끌어모은 것은 대선을 앞둔 그의 정치적 행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 ”

놓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는 다름 아닌 엘친이 10년 전 부활시켰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성탄절 미사에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공개 참석하고 자신의 대중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조성·연출하여 유권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이바지했다. 푸틴은 갑자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긴 했지만, 당시 러시아의 내로라하는 거물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중적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성탄절 미사에 참석하여 전국 생중계 방송과 뉴스의 중심에 서서 국민적 시선과 관심을 끌어모은 것은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둔 그의 정치적 행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을 터이다. 이처럼, 푸틴은 2000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이력에 하나의 뚜렷한 전통을 확립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푸틴은 자신의 개인적 면모를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연출하여 러시아 국민에게서 대중적 인기와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민중 속으로

푸틴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지난 27년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성탄절 미사에 참석해 확립한 꽤 오래된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푸틴이 그동안 주로 지방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나 예배당을 방문해서 평범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섞여 미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푸틴은 지금까지 성탄절 미사에 27차례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지방 도시 교회에 가서 참석한 횟수가 19차례로 압도적 다수를 이룬다.⁶ 반면 그가 수도 모스크바와 근교에서 성탄절 미사에 참석한 적은 여덟 번 있었다. 그중에서 2000년대에는 세 번 있었고 2010년대에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와서 푸틴은 일곱 번 중 두 번만 지방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노브고로드에서 성탄절 미사에 참석했고, 나머지 다섯 번은 모두 수도 모스크바와 근교에서 참석했다. 이처럼 2020년대에 푸틴이 주로 모스크바 시내와 교외의 교회에서 성탄절 미사를 본 주된 이유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영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푸틴은 자신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성탄절 미사에 네 차례 참석했는데, 이는 단일 지역으로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 도시들이 푸틴의 성탄절 행사 참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 푸틴은 2010년대 말까지 주로 지방 도시들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절 미사에 참석했다. 푸틴의 당시 일정과 동선에는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트베리에서부터 아주 멀게는 시베리아 야쿠츠크까지 다양한 도시가 포함돼 있다. 흥미롭게도 우랄산맥 동쪽에서 푸틴이 성탄절 미사를 본 도시로는 야쿠츠크가 유일했다. 바꾸어 말하면, 푸틴이 지난 27년간 성탄절을

“ 푸틴은 주로 지방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성탄절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자신만의 특별한 전통을 수립해 ”

맞아 방문한 시베리아-극동 지역 도시는 야쿠츠크를 제외하면 하나도 없었다. 어쨌든, 푸틴은 주로 지방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성탄절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자신만의 특별한 전통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푸틴은 액션맨으로 잘 알려진 자신의 강성 이미지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친근하고 부드러운 연성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서민적 이미지를 연출하여 자신의 종교적 행보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지지로 연결하는 등 정치적 효과와 재미를 톡톡히 봤다. 실제로, 푸틴이 지방 도시에 가서 소박한 교회를 찾아 평범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서 있는 모습은 정교회 신자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러시아 국민에게 가깝고 친근한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한편, 푸틴의 이런 종교적 행보는 정교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를 공공연히 조성하여 확산시켜 러시아 정교회 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거나 정치 권력과 특정 종교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비난을 반대파들로부터 자주 받곤 했다.

어쨌든, 푸틴은 지난 27년간 성탄절 미사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에서 주목할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성탄절 미사에 일관되게 착용하고 나가는 옷차림에서 찾아



2006년 1월 6일 야쿠츠크에서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 © 위키피디아



2011년 1월 6일 트베리주 투르기노보 마을의 성모제 교회에서 있었던 성탄절 미사에 회색 스웨터를 입고 참석한 푸틴 당시 총리 © 위키피디아

볼 수 있다. 대체로 푸틴은 성탄절 미사를 볼 때면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성탄절 미사에 나갈 때마다 완전 정장보다는 반 정장 차림을 하거나 아예 가볍고 편안한 점퍼나 재킷을 입고 참석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던 데서 잘 드러난다. 푸틴의 성탄절 드레스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장 전통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2011년 트베리주 투르기노보 마을의 성모제 교회에서 있었던 성탄절 미사 장면에서 나왔다. 이때 푸틴은 주로 입었던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지 않고 회색 스웨터를 입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서 있었다.

당시 푸틴이 회색 스웨터를 보란 듯이 입고 나온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이었다. 이 옷은 그가 2010년 여름 발생한 니즈니노브고로드주 화재를 진압해 준 데에 대한 감사 표시로 현지 주민들이 털실과 색상을 직접 골라 정성껏 떠서 선물로 보내준 스웨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옷을 입고 나오으로써 푸틴은 자신이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는 동시에 그런 국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넉넉히 암시하면서 자신과 국민 사이의 공감이나 교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푸틴이 수수한 느낌의 회색 스웨터를 입고 온화한 모습으로 주민들 사이에 편안히 서 있는 모습은 국가 지도자와 일반인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마저도 사르르 녹아 사라진 듯이 자연스러운 인상을 자아내기도 했다.

고립과 고독의 풍경

푸틴의 성탄절 전통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푸틴이 성탄절마다 방문했던 도시나 지역이 이전

에는 대부분 지방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020년대에 와서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으로 잘 뒷받침된다. 다시 말해 2020년대에 푸틴은 모두 일곱 번 성탄절 미사를 봤는데, 그중에서 지방에서는 두 번만 봤고 나머지 다섯 번은 모스크바 시내와 교외에서 봤다. 실제로 푸틴은 202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2021년 노브고로드에서 성탄절 미사에 참석하고 나서 그 뒤로는 모스크바에서만 성탄절 예배를 계속해서 봤다. 특히, 이 시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러시아 삶에도 깊은 충격파를 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관광 등 전 영역에 걸쳐 심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처럼 커다란 국가적 위기 상황은 결국 푸틴의 성탄절 전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2022년 1월 7일 성탄절에 푸틴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미사를 봤다. 그런데 이날 그는 20여 년간 지켜왔던 전통을 깨고 노보오가료보 대통령 관저 내 교회에서 미사 집전 성직자 외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만 참례했다. 이런 대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3년째 접어든 코로나19 팬데믹이 결국 푸틴의 20여 년 성탄절 전통까지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푸틴이 홀로 쓸쓸히 성탄절 미사를 보는 모습이 고립과 고독의 인상을 자아내면서 정교회 성탄절 미사에 담긴 집단적 성격과 공동체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푸틴은 2023년 성탄절에도 크렘린 내 성모영보 교회에서 성직자 외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미사를 봄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더 커진 소외감을 스스로 더 심화시킨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어쨌든, 성탄절 미사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푸틴의 외로운 모습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그의 이전 전통과 비교할 때 분명히 낯설고 어색한 풍경이었다. 이처럼 생경한 분위기는 그전까지 푸틴의 성탄절에서 자주 보였던 국가 지도자와 국민의 일체감이나 유대감보다는 그가 국민으로부터 고립·단절돼 있다는



2023년 성탄절에 크렘린 내 성모영보 교회에서 혼자서 미사를 보는 푸틴 대통령 © 러시아 대통령실

“ 푸틴의 성탄절은 2022년 발발한 전쟁의 영향으로 군사적 성격을 분명하게 띠기 시작해 ”

느낌이 더 강하게 들게 했다.

군사화 경향

2020년대에 들어와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큰 영향을 받았던 푸틴의 성탄절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특수군사작전(SVO)과 함께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한번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푸틴의 성탄절은 이제 전쟁의 영향으로 군사적 성격을 분명하게 띠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이런 변화는 푸틴이 성탄절 미사에서 2022~23년 두 번 연속 노출한 고립과 고독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3년에 걸쳐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24년 성탄절에 푸틴은 모스크바 근교 노보오가료보 대통령 관저 내 구세주 성화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푸틴의 성탄절 미사에는 SVO 과정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의 유가족도 함께했다.

이에 앞서 그는 관저 내 자택에서 이들 유가족을 미리 만났고, 이 만남을 계기로 모든 권력 기관이 군인 가족과 ‘어디서나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푸틴은 성탄절이 알고 보면 새해보다 ‘더 가족적인’ 명절일 수 있다고 말했다.⁷ 이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이제 푸틴의 성탄절은 조국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국가 권력 기관들이 모두 나서서 한 가족처럼 돌봐주고 지원해 줄 것임을 강조하고 선전하는 무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푸틴의 성탄절은 전사 군인 유가족으로 대표되는 국민과 국가 지도자가 전시 상황에서 가족적 유대감과 책임감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7일 푸틴은 모스크바 ‘승리 공원’이 위치한 ‘포클론나야 고라’ 안의 성게오르기 승천 교회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에 참석했다. 그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코트와 정장을 입고 교회에 도착해서 촛불을 켜고, 십자 성호를 긋고,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이날 미사에는 SVO 참전 용사와 현재 참전 중인 군인, 자원봉사 단체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군사 아카데미 생도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람이 참석했다.⁸ 푸틴은 이들 사이에 서서 성탄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과 공동체, 애국, 신앙 등 이른바 ‘전통적 가치들’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강조했다.

미사 후에 푸틴은 ‘구원자 예수 대성당’으로 이동하여 키릴 정교회 총대주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키릴은 우크라이나에서 SVO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한 목걸이 십자가를 향해 축성했고, 푸틴은 이 목걸이 연결고리에 군인들을 위해 자기 이름의 머리글자를 새겨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푸틴의 성탄절 행보는 군사적 내용과 성격에서 전년



2025년 성탄절에 '구원자 예수 대성당'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 앞에서 군인들을 위한 목걸이 십자가를 향해 축성하는 키릴 정교회 총대주교 © 러시아 대통령실

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변화했다. 특히, 푸틴과 키릴로 대표되는 러시아 정계와 교계 최고위 인사들이 전쟁 지지와 지원에 일치단결해 나르고 있음을 바로 성탄절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년째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러시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더욱더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를 맞았을 때까지만 해도 군사화 경향에서 거리가 멀었던 푸틴의 성탄절 행보조차도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군사-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종교적 축일의 군사화 경향은 2026년 푸틴의 성탄절 미사에서 더 뚜렷하고 강렬해졌다. 이는 성탄절 미사가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러시아 군용 대순교자 게오르기 포베도노세츠 교회에서 열렸고 이 미사에 '러시아 영웅'으로 불리는 SVO 참전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미사에 참석한 참전 군인들이 러시아군 정복을 보란 듯이 짝 빼입고 푸틴 대통령 좌우로 나란히 선 늙은 모습은 종교적 행사에 군사적 성격과 위용을 한층 더 강화해 줬다. 이와 함께 푸틴이 정복을 차려입은 '러시아 영웅'들 사이에서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은 2023년 신년사 당시 그가 남녀노소 다민족으로 구성된 러시아 군인들을 병풍처럼 바로 뒤에 두고 결연한 표정으로 단결의 메시지를 전했던 강렬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게다가, 푸틴은 미사 이후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정교회 신자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 푸틴과 키릴로 대표되는 러시아 정계와 교계 최고위 인사들이
전쟁 지지와 지원에 일치단결해 나르고 있음을
바로 성탄절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



2026년 성탄절 미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 © <리아노보스티>

전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국을 수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⁹ 이로써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역사적 연속성 속에 신성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했다.

이처럼 최근 푸틴의 성탄절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군사화 경향과 군사·정치적 성격을 점점 더 강하게 띠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푸틴의 대중 이미지는 과거 성탄절 미사에서 그가 보여준 친근하고 부드러운 지도자상에서 등직한 전시 지도자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최종 승리로 끝날 때까지 당분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다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 1 “‘Говорят под Рождество...’ или споры о Рождестве в КС РФ.”
<https://dzen.ru/b/ZY14cBII6FUW7mM8>
- 2 “Рождество Христово в России.”
https://ru.wikipedia.org/wiki/Рождество_Христово_в_России#cite_note-17
- 3 “‘Говорят под Рождество...’ или споры о Рождестве в КС РФ.”
- 4 “A Russian Christmas--Better Late Than Never: Soviet Union: Orthodox Church celebration is the first under Communists. But, as with most of Yeltsin’s pronouncements, the holiday stirs a controversy.”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1-01-07-mn-5892-story.html>
- 5 위의 기사
- 6 “От Москвы до Новгорода. Где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чал Рождество.”
<https://tass.ru/info/22827809>
- 7 “Как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тил Рождество.”
<https://www.vedomosti.ru/politics/galleries/2024/01/07/1014085-kak-vladimir-putin-vstretil-rozhdestvo#140737496775317>
- 8 “Путин встретил Рождество в Москве. Президент попросил выгравировать его инициалы на крестиках для бойцов СВО.”
https://www.gazeta.ru/social/2025/01/07/20345564.shtml?utm_auth=false
- 9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тил Рождество в храме в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https://www.m24.ru/videos/vlast/07012026/861973>

2026년 러시아 경제 전망 냉각기에서 균형 성장으로

알렉산드르 크라마렌코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현안연구소 소장

2026년, 평시 경제로 연속되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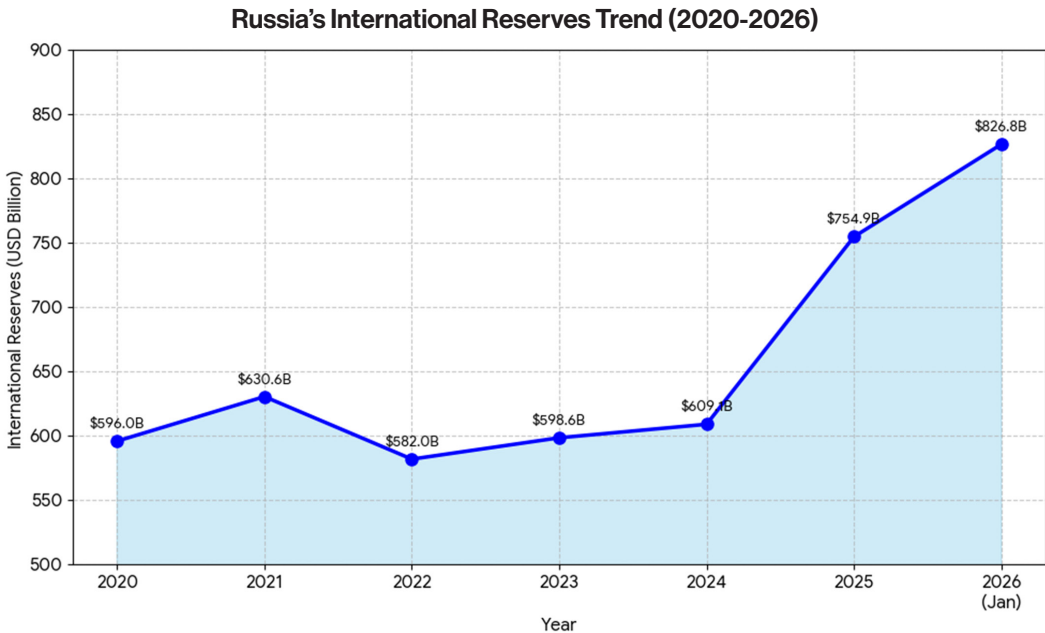
2025년은 러시아에 전환의 해였다. 방위산업(OPK) 부문의 급격한 생산 확대에 힘입었던 회복적 호황기를 지나, 4% 수준의 기준 성장률에서 0.7~1.3%로 낮아지는 계획된 냉각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025년의 경제 냉각은 통화 정책과 함께, 같은 해 1월 중앙은행 금리가 21%까지 인상되면서 진행됐다. 그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8%로 하락함에 따라 금리가 점차 낮아지자, 러시아는 16%(12월 기준)의 금리로 새해를 맞이했다.¹ 경제 과열이 해소됐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며, 이는 올해 중 점진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2025년 러시아의 투자와 소득 성장률은 이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다. 실질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은 1.7%(2024년 7.4%), 실질 가처분 소득 성장률은 3.8%(2024년 7.3%)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3%로 최저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2025년 1~11월 산업 생산량은 0.7% 감소했고, 11월 한 달간 전월 대비 4.1% 급감한 점은 경기 침체 진입의 위협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세계 평균 이상인 약 3% 수준으로 회복시

“ 2026~28년 러시아 정부 계획은
지출의 대대적인 최적화를 통한 평시 경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 ”

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초 정부와의 첫 회의에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경제 성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 러시아 예산 및 2027~28년 계획안은 지출의 대대적인 최적화를 통한 평시 경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² 경제 개발부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3%, 이후 2년간 각각 2.8%와 2.5%를 달성할 전망이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은 235조 700억 루블에 육박하고 투자 규모는 5% 증가한 45.3조 루블(GDP의 19.3%)에 달하며, 국방비는 예산 지출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³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GDP의 1.6%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2025년 2.6%). 또한 부가가치세(VAT)를 22%로, 소득세를 25%로 인상하는 등 조세 정책 개선도 포함되나, 거시 경제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인하될 수 있다. 2026년 수입은 8.6% 증가하고 지출은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금값 상승(트로이온스당 5,250달러 돌파) 등에 힘입어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군수 산업, 경제 연착륙 기여

러시아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 회복 과제가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전시 경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러시아 경제의 현 상황을 한층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선 2023년



러시아 외환보유고 추세 © 러시아 중앙은행

이후 러시아 경제를 이끌어 온 군수 산업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는 생산 능력과 인적 자원의 한계에 도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종사자 수는 25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증가했다.⁴ 방위산업체들은 최대 가동률을 보였으며, 광섬유를 이용한 각종 변형 모델을 포함한 드론과 같은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⁵ 올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SVO)이 종료될 가능성이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방위산업 부문의 생산 강도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평시 체제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인데, 이는 서방 전체가 무기와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대전의 새로운 성격을 고려하여 무기 체계와 비축분을 전면 쇄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침공’이라는 거짓 명분 아래 진행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어느 정도나 고려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어떠한 경우이든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무역·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달러를 무기화한 최근 몇 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 이는 주요 산업 생산과 기술 진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자급자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4년이 보여주었듯, 이런 접근 방식은 정당성을 입증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포함한 대서방 관계의 역사적 경험과도 궤를 같이한다.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강요된 새로운 군비 경쟁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군사 경제에서 평시 경제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보장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당수 군인이 제대하겠지만, 새로 설정된 러시아군 정원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른 인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전시 상황은 방위산업이 경제의 50%를 차지하고 군 병력이 500만 명에 육박했던 소련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체 예산 지출의 29.3%를 차지할 전망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러시아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비 지출을 넘어, 경제 전반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러시아 경제 현실에서 이 완충 지대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고용과 기술 숙련도 유지다. 방위산업에 유입된 100만 명의 추가 인력은 고도의 기술 교육을 받은 상태이며, 특수군사작전(SVO)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리스크를 ‘기술적 리더십’ 국가 프로젝트로 흡수함으로써 90년 대식의 급격한 탈산업화 쇼크를 방지한다. 둘째, 산업 가동률의 하방 지지다. 군수물자 비축분 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주문은 제조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민간 고부가가치 제품(로봇, 항공 등) 생산으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2026년 국방 예산 중 국방 연구개발(R&D) 비중은 전년 대비 19.19%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군사 기술을 민간으로 전용하여 산업 가동률을 유지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⁶ 결국 러시아 경제를 지지해 온 군수 산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진화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를 지지해 온 군수 산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진화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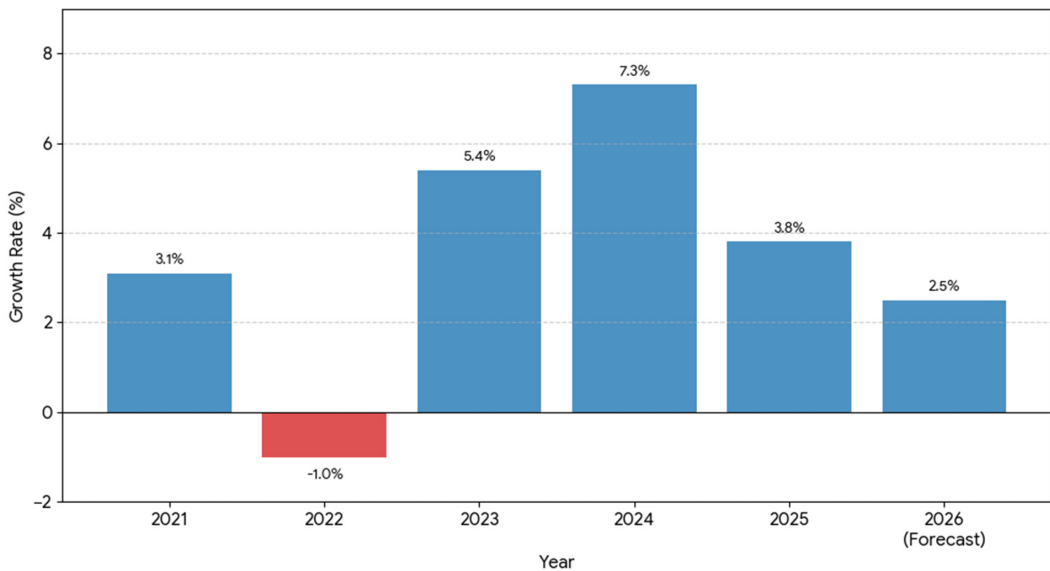
내수 시장,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동력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최근 군수 산업과 연계되어 러시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내수 시장이다. 경제개발부도 향후 경제 회복이 성장이 주로 내수 시장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예측한다. 러시아 GDP에서 민간 소비(개인소비지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6월 기준 53.8%를 기록했다.⁷ 2025년 3분기 러시아 가계 소비 지출은 20조 563억 루블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외식·엔터테인먼트)과 온라인 전자상거래(마켓플레이스)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카페,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지출 비중은 2024년 17%에서 2025년 30%로 급격히 확대됐다. 식료품은 가계 지출의 평균 56%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다. 최근에는 건강식품, 비타민 등에 대한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존(Ozon)이나 와일드베리(Wildberrie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소비 채널로 급부상했다. 예를 들어, 2023년 마켓플레이스 내 가정용품 판매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하며 소비를 촉진한 바 있다.⁸ 2026년 실질 소득 성장률이 2.5%로 다소 둔화하지만, 실업률은 2.4%로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대를 유지하고 2026년부터 3년간 국가 프로젝트의 43%를 '가족 및 사회적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입함에 따라 2026년에도 민간소비 비중은 52~54%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GDP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⁹ 2023~24년은 보복 소비와 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소비 폭발'에 따른 이상 과열 경제기였다면 2025~26년은 고금리와 합리적 소비 패턴이 정착되는 '소비 안착과 속도 조절'의 시기다. 2026년 이후는 과열된 내수가 이전 시기 대비 냉각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여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러시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에너지 의존 탈피

러시아 경제에 오랫동안 핵심적으로 이바지한 석유·가스의 역할도 재조명돼야 한다. 2026년

Russia's Real Disposable Income Growth Rate (202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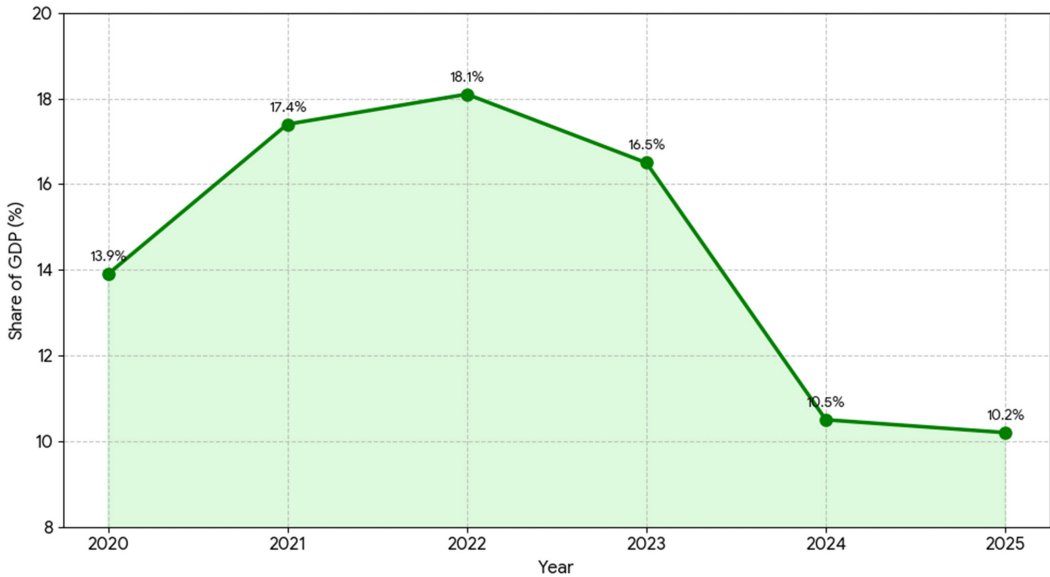
러시아 실질 가처분 소득 성장률 추이 © 러시아 중앙은행

국제 유가는 배럴당 65~70달러로 예상되며, 물류 최적화와 수출 노선 다변화를 통해 우랄산 원유 할인폭은 2025년 12달러에서 2028년 7달러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루블화 가치는 올해 평균 달러당 92.2루블까지 약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76.0루블로 비정상적인 강세를 보이며 수출업자와 세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 불확실성 증가, 2차 제재를 통한 압박 강화,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 등을 상정한다. 이 경우 유가는 55~60달러,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2026년 0.8%, 이후 2년간 평균 1.7%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가스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의존형 방어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그해 국제 유가 급등과 수출 물량 유지로 인해 석유·가스가 경제 전반과 재정에서 중추 역할을 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석유·가스 부문이 러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간 평균 약 18.1%를 기록했다. 당시 러시아 GDP가 -2.1% 역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석유 생산량은 오히려 2.1% 증가하며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26년은 내수 및 제조업 중심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기술 주권’ 확보와 수입 대체 산업 성장에 따라 에너지 산업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22년 42%에 달했던 석유·가스 세수 비중은 2026년 22.3%까지 하락하며, 비에너지 수입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게 된다.¹⁰ 2026년 석유·가스 부문의 GDP 내 비중은 약 9.9%~10% 수준, 즉 2022년 (18.1%) 대비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¹¹ 또한 예상 GDP 성장률 1.3%에서 석유·가스의 직접적인 기여도는 낮아지는 반면, 제조업과 내수 소비가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GDP 성장률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직접적인 기여도는 약 0.1~0.2%p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성장의 약 10~15%만을 담당하는 수치다. GDP 성장률의 나머지 약 1.1~1.2%p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원자재 부문’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GDP의 19.3%)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가스를 포함한 채굴 산업(Extractive Industry)의 성장률은 1.1~1.8% 수준에 그치지만, 제조업은 2.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¹²

러시아 경제는 과거 에너지 의존적 성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제조업과 내수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특히 ‘기술적 리더십’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들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는 생산 수단 및 자동화, 신소재 및 화학, 식량 안보 기술, 무인 항공 시스템, 우주 활동 개발, 차세대 원자력 및 에너지 기술, 바이오 경제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 성장률은 2.9%로 예상되며, 특히 수입 대체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활동이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석유·가스 산업을 포함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과제로는 북극 개발 및 북극항로 활용, 교육 개혁을 통한 ‘고임금 경제’

“ GDP 성장률에서 석유·가스의 직접적인 기여도는 낮아지는 반면, 제조업과 내수 소비가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될 것 ”

Share of Oil and Gas in Russia's GDP (2020-2025)



러시아 GDP에서 석유·가스 비중 변화 © 러시아 경제개발부 및 통계청

실현, 그리고 에너지 발전 용량 확충 등이 있다. 2025년 GDP의 19.3%에 해당하는 45.3조 루블을 ‘기술적 리더십’과 에너지 발전 용량 확충 투자에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매년 5~6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차세대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통해 추가할 계획이다. 2042년까지 총 28.5GW의 신규 원자력 설비를 도입하여 연간 신규 용량의 약 25~30%(약 1.5GW)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전력 생산의 약 44~50%를 담당하는 가스 발전은 신규 용량의 약 60~70%(약 3.5~4GW)를 차지하여 가장 핵심적인 안정적 에너지원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교역 다각화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함께 러시아 경제 현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인이 국제 교역 구조의 변화다. 한마디로 브릭스 플러스(BRICS+)를 통한 협력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020년 38%에 달했던 유럽연합(EU)과의 교역 비중이 2025년 8%로 급락한 반면, 중국과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을 포함한 ‘우호국’과의 교역 비중은 러시아 총교역의 70% 이상으로 확대됐다.¹³ 특히 러시아 수출의 75% 이상이 이들 우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비료 등 주요 품목의 브릭스 국가 수출은 2021년 대비 71%나 증가했다. 러시아와 중국 간 결제에서 자국 통화 비중은 거의 100%에 달하며 인도, 걸프만 국가,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달러 결제에서 탈피하고 있다.¹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달러화

“ 브릭스 플러스(BRICS+)를 통한 협력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

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BRICS)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⁵ 2026년 현재 이 정책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결제 인프라 구축과 자국 통화 결제 비중 확대로 구체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탈달러 정책은 단일 공동 통화 도입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실무적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회원국 간 경제 구조 차이로 인한 공동 통화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자국 통화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술 네트워크 구축, 즉 독자적인 금융 메시징 및 결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브릭스 페이(BRICS Pay)와 브릭스 브리지(BRICS Bridge)는 회원국 간 자국 통화 결제를 지원하는 분산형 결제 플랫폼으로, 2024년 모스크바에서 시제품이 시연됐으며 2026년 중 광범위한 운영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DCMS(분산형 교차 국경 메시징 시스템)는 중앙 허브 없이 참가자가 직접 노드를 관리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제재로부터 안전한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금융통신망(SPFS),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결제 시스템(CIPS), 인도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브라질의 Pix 시스템 등 각국의 국가 결제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적 기간망을 형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 흐름은 약 3만 건에 달하는 제재 압박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나가며

2026년 러시아 경제는 과거 방위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을 뒤로하고, 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균형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 비록 생산 능력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성장률이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계획된 냉각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는 경제의 이상과 열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기술 주권'과 '자급자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그 결과 과거 석유·가스 의존형 구조에서 제조업과 내수 시장 중심 구조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2022년 42%에 달했던 석유·가스 세수 비중이 2026년 22.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이러한 경제적 진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방위산업을 경제 전반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지대'로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군사 기술을 민간으로 전용하는 전략을 통해 평시 경제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브릭스 플러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을 100% 가깝게 끌어올리는 등 탈달러화 정책을 구체화하며, 서방의 고립 시도를 무력화하고 다극화한 국제 경제 질서의 한 축으로서 주권적 발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우선 다극화하는 글로벌 금융 결제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가 브릭스 국가들과 구축 중인 브릭스 브리지나 브릭스 페이 같은 독자적인 결제 플랫폼은 단순한 제재 우회 수단을 넘어 향후 국제 금융 질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유연한 금융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가 미래 과제로 설정한 북극 개발 및 매년 5~6GW 규모의 신규 발전 용량 도입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러시아와의 제한적인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극항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가 내수와 우호국 중심으로 견고한 회복력을 증명하

“한국은 제재의 장기화가 시장 점유율 상실과 미래 기회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잡힌 러시아 정책 기조를 유지”

고 있는 만큼, 제재의 장기화가 한국의 시장 점유율 상실과 미래 기회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잡힌 러시아 정책 기조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한 민간 소비 시장과 온라인 상거래 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러시아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오존이나 와일드베리 같은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서방 브랜드가 철수한 자리를 우리 제품이 대체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자동화, AI, 신소재 등 ‘기술적 리더십’ 국가 프로젝트 부문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와 맞닿아 있으므로, 해당 산업의 자립화 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러시아 교역의 직접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우호국’ 거점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 우호국을 통한 우회 경로를 발굴하거나 합작 투자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변화된 무역 지형 속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1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клад о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 2025.01.
- 2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25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6 и 2027 годов”, 2024.10.
- 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2026 год”, 2024.12.
- 4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тат), “Статистика рынка труда и отчет о занятости в ОПК за 2024 год”, 2025.01.
- 5 ТАСС / Интерфакс, “Доклад о внедрени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я и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2025.12.
- 6 Meta-Defense.fr, “Analysis of Russian 2026 Defense Budget and R&D Investment”, 2025.12.
- 7 Meduza/Reuters, “Russia’s 2026 budget priorities and industrial production trends”, 2026.01.
- 8 Рейт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 «Эксперт РА», “Рынок услуг и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в РФ: итоги 2025 года”, 2026.01
- 9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Ф, “Доклад о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Семья’ и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2025.
- 10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Ф, “Ежемесячный отчет об исполн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ефтегазовые доходы”, 2025.12.
- 11 Институт Гайдара, “Экономик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 нефтегазовый сектор”, 2025.
- 12 Эконом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ная группа (ЭЭГ), “Оценка вклада нефтегазового сектора в рост ВВП РФ”, 2025.11.,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Ф, “Отчет о развитии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отраслей 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и”, 2026.01.
- 13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ФТС России),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и странам”, 2026.01.
- 14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амках БРИКС: переход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валюты”, 2025.11.
- 15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плате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амка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форматов”, 2025.

국경 밖의 영웅들 러시아인 레지스탕스

글 _ 예카테리나 지리츠카야 러시아 문화인류학자

번역 _ 이태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제2차 세계대전은 흔히 전선의 이동과 전투의 결과로 요약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러시아의 승리는 동부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파시즘에서 해방된 유럽의 역사에는 러시아가 치른 희생이 깊게 배어 있고, 그 희생의 흔적은 국경 밖에서도 수없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저항의 현장은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다.

그 흩어진 현장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러시아 디아스포라다. 10월 혁명 이후 고국을 떠난 망명자들은 유럽 도시들과 발칸반도 산악지대, 더 나아가 남아메리카에까지 자리 잡았다.

그들은 단합된 공동체가 아니었다. '백'과 '적' 같은 구분도, '방어파'와 '패전파' 같은 단순한 틀도 이들의 경험을 담아내지 못한다. 나치와 협력한 이들이 있었던 만큼, 반파시스트 지하조직과 파르티잔 부대에서 싸운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고 포로를 빼돌렸으며, 어떤 이들은 전단을 찍어 '레지스탕스'라는 단어를 퍼뜨렸다. 총을 들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옷을 만들고 그림을 팔아 번 돈으로 식량과 약품을 마련해 전선으로 흘려보냈다. 저항은 무장투쟁만을 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에서 이들의 이름이 국가적 기억 속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기록은 흩어져 있고 연구는 아직도 빈칸이 많다. 모스크바 '러시아 디아스포라 박물관'에서 러시아 망명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방식대로 전쟁에 참여했는지를 추적해 온 마리나 소로키나는 바로 그 공백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메워 왔다. 그녀의 말처럼, 러시아인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 망명자들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른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2025년 3월호)의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초기 조직에서부터 유고슬라비아의 민족해방운동, 이탈리아의 지하활동, 남아메리카의 라디오 저항에 이르기까지 국경 밖에서 이어진 러시아인들의 반파시스트 투쟁을 따라간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인들의 전쟁과 디아스포라, '공동된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註)

러시아 출신 레지스탕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무찌른 러시아의 승리는 한 나라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는다. 파시즘에서 해방된 유럽의 역사가 러시아가 치른 희생과도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에 퍼진 러시아 교포들의 삶이다. 그들은 타지에서 레지스탕스 운동과 파르티잔 부대의 일원으로 싸웠다. 그중 많은 사람이 사후에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의 국가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나 결국 이들은 러시아 영웅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이들의 이름이 국가 서사 속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동안 놓쳐 온

빈칸이 많다. 러시아 재외 교포 역사 부문을 담당하는 ‘러시아 디아스포라 박물관’의 마리나 소로키나는 바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현장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녀는 유럽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한 러시아 영웅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 망명자들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인 대부분이 잘 모르는 이야기다. 전쟁은 유럽만 휩쓴 게 아니었다. 극동과 아프리카로도 번졌으며 그 여파는 남아메리카에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모든 대륙에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를 떠난 망명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정치적 이유로 스스로 망명을 택한 이도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경 밖으로 내몰린 난민이 더 많았다. 그래서 러시아 디아스포라는 결코 단합된 공동체가 아니다. 백계 정치나 군사 망명 같은 틀로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훨씬 더 복잡한 이 현상은 아직 제대로 연구돼 있지 않다. 그런 지식의 공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 재외 교포들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백’도 ‘적’도 아닌 사람들

러시아 역사 서술에서 널리 반복돼 온 이야기는 대개 세계를 둘로 나눈다. 소련을 둘러싼 맥락에서는 ‘적색’과 ‘백색’이, 제2차 세계대전의 맥락에서는 ‘방어파’와 ‘패전파’가 그 구도를 형성



마리나 소로키나 © 《루스키 미르》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 망명자들이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인 대부분이 잘 몰라 ”

“ 젊은이들에게 좌파 세력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로 돌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처럼 보여 ”

한다. ‘패전파’는 악마와 손을 잡더라도 볼셰비키로부터 러시아를 해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소련의 패배를 바랐다. 반대로 ‘방어파’는 볼셰비키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조국이 전쟁에서 승리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은 나치와 소련에 대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마리나 소로키나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간다. “예컨대 데니킨 장군은 소련의 승리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치와 협력한 적도 없다. 망명 정치권 안에는 히틀러 세력과 여러 형태로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좌파’ 운동도 존재했다.”

전쟁 전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러시아 교포 사회가 어디로 움직일지 사회·정치적 방향을 가늠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마리나 소로키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흥미롭고 선명한 사례로 유고슬라비아를 꼽는다. 러시아 내전이 끝난 뒤, 이곳으로 러시아 사관후보생 학교들이 대거 피란해 왔다.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들은 장교 출신 교관들의 지도하에 학업을 이어 갔다. 교관 가운데 일부는 제자들이 훗날 볼셰비키로부터 러시아를 해방할 미래의 주역이 돼 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길로 흘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운동에 뛰어든 러시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바로 그 사관후보생 학교 출신이었다. 레프 톨스토이의 증손자이자 언어학자인 니키타 톨스토이는 망명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우리는 아버지들을 원망했다. 우리를 조국 없는 아이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르비아 파르티잔과 붉은 군대에 합류해 싸운 뒤 소련으로 귀환했다. 2023년에는 세르비아 브르샤츠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니키타 톨스토이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좌파 세력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로 돌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처럼 보였다. 그들은 소련의 이념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레지스탕스의 시초

프랑스에서 반(反)히틀러 투쟁의 시작을 알린 인물로는 보통 샤를 드골이 거론된다. 1940년 6월 그는 프랑스인들에게 “행동과 희생, 희망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레지스탕스’라는 이름 자체가 자리 잡는 데에는 러시아 망명자 두 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리스 빌데와 아나톨리 레비츠키가 바로 그들이다. 파리가 점령된 뒤 두 사람은 《레지스탕스!(Résistance!)》라는 제목의 신문 겸 전단을 발행했다. 뜻은 단순하다. “저항하라!”라는 이 한마디에서 ‘레지스탕스’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리나 소로키나는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숨을 수도 있었지만, 끝내 숨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움직인 사람들이다. 빌데와 레비츠키가 바로 그런 반파시스트였다.

보리스 빌데는 19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현에서 철도 직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9년 그

는 어머니와 함께 에스토니아로 옮겨 타르투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1930년 빌데는 독일로 건너가 번역가로 일하다가 1932년 작가 앙드레 지드의 권유를 받아 파리로 이주해 소르본대학교 역사·문헌학부에서 민족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937년부터는 파리 인류 박물관 유럽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문학 동인 모임에 참여하며 프랑스 내 ‘젊은 러시아 시인·작가 연맹’에도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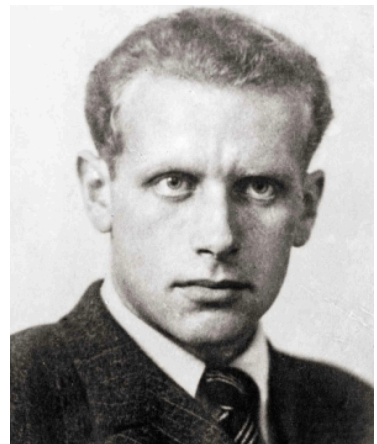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프랑스군에 동원됐다. 아르덴 전선에서 포로로 잡혔지만, 탈출에 성공했다. 1940년 7월 초 파리로 돌아온 빌데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초기 조직 가운데 하나를 세웠으며, 《레지스탕스!》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41년 3월 밀고로 체포된다. 수사는 10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는 교도소에서 그 시간을 일기로 남긴다. 이 일기는 훗날 출간돼 세상에 공개됐다. 1942년 2월 23일 빌데는 같은 조직의 동료들과 함께 몽발레리앵 요새에서 총살됐다.

빌데는 사후 프랑스 ‘레지스탕스 훈장’을 받는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우들과 함께 이브리쉬르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프랑스 국가 영웅이 됐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생겨났다. 파리 인류 박물관 건물에는 추모 명판도 걸렸다. 그 위에는 샤를 드골의 말이 새겨져 있다. “빌데는 빼어난 과학 개척자였으며, 재판정에서도 처형자의 총탄 앞에서도 뛰어난 용기와 자기희생을 보여줬다.” 빌데에 대한 기념은 국경을 뛰어넘어 이어졌다. 1967년 9월 빌데가 다녔던 타르투대학교 외벽에도 기념 현판이 설치됐다. 그리고 소련 시절 레닌 그라드주 볼로소보구의 야스트레비노 마을에 있는 그의 부모의 옛 영지에서도 작은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앞서 언급한 아나톨리 레비츠키도 몽발레리앵 요새에서 빌데와 함께 총살됐다. 레비츠키는 유대계 정교회 가정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부터 좌파 사회혁명당에 가까이 다가갔으며 1918년 7월 러시아를 떠나 스위스로 피신했다. 1920년대 초에는 파리로 옮겨 소르본대학교 역사·문헌학부와 민족학 연구소에 다니며 북방 민족들의 문화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



보리스 빌데 © 《루스키 미르》



아나톨리 레비츠키 © 《루스키 미르》

구했다. 레비츠키의 실적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파리 인류 박물관 설립에 참여했으며 1939년에는 박물관의 수석 보존 책임자까지 맡았다.

전쟁이 터지자, 레비츠키는 빌데와 함께 레지스탕스 초기 지하조직 가운데 하나를 결성했다. 《레지스탕스!》 전단 신문도 박물관 인쇄소에서 직접 찍어냈다. 레비츠키가 한 일은 ‘저항’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는 드골이 런던에서 이끌던 ‘자유 프랑스’에 합류하려는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국외로 빼돌리는 데 힘을 보탤었다. 동시에 러시아 망명자들의 탈출도 도왔다. 1941년 2월 레비츠키는 게슈타포에 체포된다. 하지만 그는 몽발레리앵에서 처형될 때 동료들과 함께 눈가리개를 거부했다. 그는 1943년 ‘레지스탕스 훈장’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보리스 빌데와 함께 파리 팡테옹의 추모 벽에 새겨졌으며 인류 박물관의 기념 명판에도 남아 있다. 그리고 1985년 빌데와 레비츠키는 소련의 1급 조국전쟁 훈장을 받았다.

‘아무것도 몰라요’ 공작부인

프랑스 레지스탕스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비키 오볼렌스카야다. 본명은 베라 마카로바다. 그녀는 바쿠현 부지사의 양녀였다. 1920년 5월 아홉 살이던 베라는 어머니와 함께 증기선을 타고 노보로시스크를 떠났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였다. 1922년 가족은 다시 파리로 옮겼다. 외모가 빼어난 베라는 친구 소피야 노소비치와 함께 러시아 패션하우스 ‘이테브’에서 모델로 일했다. 참고로 이들은 훗날 함께 체포돼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로 보내진다. 1937년 베라는 니콜라이 오볼렌스키 공작과 결혼하며 이름이 ‘비키 오볼렌스카야’로 바뀌었다.

1940년 오볼렌스카야와 노소비치는 자크 아르튀스가 이끌던 반파시스트 지하조직에 합류했다. 그렇게 두 사람도 레지스탕스의 일원이 됐다. 조직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포로수용소에 갇힌 프랑스 장교들의 탈출을 도왔다. 독일군의 이동 경로와 병력 상황을 파악해 전달했고, 강제수용소로 향하는 열차의 움직임도 추적했다. 비키 오볼렌스카야는 이 조직의 핵심 조정자였다. 그는 기억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났고, 프랑스 전역에 뻗어 있는 지하조직의 연락망을 머릿속에 그대로 암기해 두고 있었다. 1943년 12월 오볼렌스카야는 체포된다. 그녀는 끝까지 나치와의 협력을 거부했다. 그 대가로 독일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몰라요’ 공작부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사형이 선고됐을 때 오볼렌스카야는 사면 탄원서를 쓰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1944년 여름 그는 독일로 이송됐고 베를린 플뢰첸제 감옥에서 단두대로 처형됐다.



비키 오볼렌스카야 © 《루스키 미르》



소피야 노소비치 © 《루스키 미르》

니콜라이 오볼렌스키 공작 역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파리 다뤘 거리의 성 알렉산드르 뱀스키 대성당에서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그녀의 흔적을 기억 속에 남기는 일에도 끝까지 힘을 쏟았다. 비키 오볼렌스카야는 사후 프랑스 최고 훈장 가운데 하나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 슈발리에 십자장과 소련의 1급 조국전쟁 훈장을 받았다.

페르낭 레제의 아내

레지스탕스라고 하면 보통 지하조직 활동이나 파르티잔 투쟁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마리나 소로키나의 말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역사학계는 레지스탕스의 범위와 형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정해 왔다. 무장투쟁 외에 ‘정신적 저항’도 있었다. 소로키나는 그런 사례로 화가 나데즈다 레제를 든다. 나데즈다는 시인 블라디슬라프 호다세비치의 사촌이었고, 파리 현대미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그곳에서 교편도 잡았다. 그리고 훗날 프랑스 화가 페르낭 레제의 아내가 된다.

1932년 나데즈다 레제는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다. 나중에 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 문화부 산하 ‘전선 지원 협회’의 일원이 됐다. 프랑스가 점령되고 나서 나데즈다는 파리 지하조직에서 활동했다. 반파시스트 전단을 거리 곳곳에 붙였고, 강제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보내 줄 옷과 식료품을 모아 전달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여성복을 만들어 팔며 자신의 그림도 함께 내놓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식량과 물자를 구매해 파르티잔 부대로 보냈다. 소리 없이 이어졌으나 분명한 저항이었다.

1944년 나데즈다 레제는 ‘소련 애국자 연합’ 산하 미술 부문을 맡아 이끌었다. 그녀는 이 단체의 이름 아래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열며 저항의 경험을 예술로 기록하고 확산하는 일을 이어 갔다. 1945년 2월에는 더 큰 행사를 성사



나데즈다 레제 © 《루스키 미르》

“ 레지스탕스의 범위와 형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어 ”

했다. 피카소, 마티스, 브라크의 작품을 모아 자선 경매를 열었고, 수익금을 소련 전쟁포로들을 돕는 일에 썼다. 나테즈다 레제는 같은 연합 산하 '소련 전쟁포로 지원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소련 시민들을 위해 '보르가르'라는 수용 캠프를 마련했고, 그들에게 보낼 옷과 약품, 식료품을 모아 지원했다.

반파시스트 골레니셰프-쿠투조프

유럽에서 레지스탕스의 중요한 거점이 된 '소련 애국자 연합'은 1941년 여름에 베오그라드에서 탄생했다. 프랑스에서 같은 조직이 생긴 건 그보다 늦은 1943년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련에 공감하던 사관후보생 출신 러시아 소년들이 있었다. 당시 그들의 나이는 고작 스무 살을 막 넘긴 정도였다. '소련 애국자 연합'의 창립자와 구성원 가운데 귀족 가문의 출신이 상당히 많았다. 이들에게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러시아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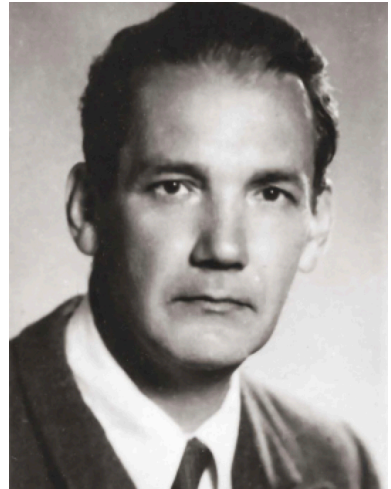
훗날 언어학자이자 번역가가 되는 일리야 골레니셰프-쿠투조프는 열여섯 살 때 크림반도에서 유고슬라비아로 망명했다. 그는 베오그라드의 제1 러시아-세르비아 중등학교를 졸업한 뒤 베오그라드대학교 철학부를

마쳤다. 이후 몬테네그로와 달마티아 지역의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1933년에는 소르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1938년 봄 그는 유고슬라비아 경찰에 체포된다. 소련을 옹호하는 선전을 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국적을 박탈당했고,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1941년 독일이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자 골레니셰프-쿠투조프는 자원해서 유고슬라비아 왕립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왕립군이 곧바로 항복하자, 그는 다시 베오그라드로 돌아와 '소련 애국자 연합' 반파시스트 조직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이 됐다. 1943~44년에는 파르티잔 부대에서 직접 싸우기도 했다. 베오그라드가 해방된 뒤 그는 소련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그 뒤로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의 삶은 다시 흔들렸다. 1949년 6월 골레니셰프-쿠투조프는 다른 '소련 애국자 연합' 인사들과 함께 다시 체포된다. 이번 혐의는 간첩 활동이었다. 1951년 8월 그는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고, 1955년 여름에 석방됐다. 그제야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모스크바에 정착한 골레니셰프-쿠투조프는 고리키문학대학 외국 문학 부문에서 선임연구원이 됐다. 이후 그는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푸시킨 하우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 심사에는 러시아 문헌학을 대표하는 빅토르 지르문스키와 드미트리 리하초프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골레니셰프-쿠투조프는 학문으로 복귀하게 됐다.

군의원들의 희생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비교적 잘 알려졌지만, 유고슬라비아는 히틀러에 맞선 저항이 훨씬 더 격렬했음에도 그곳에서 활동한 러시아 교포들의 존재와 역



일리야 골레니셰프-쿠투조프 © 《루스키 미르》

“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내전과 겹쳐 돌아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러시아 망명자들은 파르티잔 부대와 지하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

할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내전과 겹쳐 돌아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러시아 망명자들은 파르티잔 부대와 지하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부대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다.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의 종조카인 마리나 베르다예바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군의관이었다. 파르티잔 부대의 일부 인원과 함께 크로아티아의 파시스트 조직인 우스타샤에 붙잡혔고 산 채로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명의 군의관이 있다. 올가 옐라치치-야네지치다. 1921년 가족이 러시아를 떠날 때 올가는 열 살이었다. 1924년 유고슬라비아 국적을 취득했고 베오그라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녀는 부상당한 파르티잔들을 치료했다. 병원에 숨겨 돌보거나 지하조직 활동가들의 집으로 옮겨 은신시키기도 했다. 그러다 1942년 2월 체포돼 니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몇 달 뒤 석방됐지만, 파르티잔 부대로 다시 돌아갔다.

기억해 둘 만한 이름이 또 하나 있다. 타마라 볼콘스카야 공작부인이다. 1917년 그녀는 간호사로 캅카스 전선에 나갔다. 1918년 여름에는 콘스탄티노폴로 떠났고 1920년대 초 프랑스로 이주했다. 1940년 점령된 파리를 빠져나온 볼콘스카야는 프랑스 도르도뉴주에서 파르티잔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파르티잔에 합류하라고 호소하는 전단을 뿌리며 다리와 철로를 폭파하는 작전에도 직접 참여했다. 볼콘스카야는 자신의 작은 농가를 야전병원으로 꾸미고 다친 파르티잔들과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치료했다. 의식주와 약품도 자기 돈으로 마련했다.

소련 파르티잔들은 그녀를 ‘붉은 공작부인’이라고 불렀으며, 프랑스 파르티잔들은 ‘라 프랭세스(La Princesse)’라고 불렀다. 1944년 3월 그녀는 체포돼 계슈타포에서 고문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려났으며 1945년에는 소련 시민권을 취득했다. 1950~60년대에 볼콘스카야는 프랑스에서 숨진 소련 병사와 장교, 강제수용소 희생자들의 매장과 이장 문제에 매달렸다. 그는 십자 훈장, ‘레지스탕스 훈장’, ‘자원 군복무 훈장’, 그리고 2급 조국전쟁 훈장을 받았다.



타마라 볼콘스카야 공작부인 © 《루스키 미르》

“유럽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해 싸운
러시아인들의 이야기가 소련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1965년”

조국이 뒤늦게 인정한 사람들

유럽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해 싸운 러시아인들의 이야기가 소련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1965년이였다. 그해 러시아 백계 망명자 몇 명이 레지스탕스 참여 공로로 소련의 전투 훈장을 처음 받았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소련이 전투 훈장을 수여한 러시아 망명자는 총 12명뿐이다. 그 명단에는 시인이자 세르비아 파르티잔이었던 알렉세이 두라코프도 포함돼 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지역 출신 백계 망명자로는 유일하게 이 목록에 오른 인물이다. 나머지는 모두 프랑스 레지스탕스 참여자였다.

펜자 지방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알렉세이 두라코프는 발칸 지역 러시아 망명 문단이 길러낸 시인이었다. 1917년 그는 페트로그라드 해군학교에 입학한 뒤 1920년 8월 두브로브니크로 망명했다. 이후 베오그라드대학교 철학부에서 공부했고 세르비아 남부의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1920~30년대 두라코프는 여러 문학인 모임에서 시를 발표하며 존재감을 키워갔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소련 애국자 연합’의 일원으로 곧바로 반파시스트 투쟁에 뛰어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 차례나 체포됐다. 1944년 두라코프는 파르티잔 여단에 합류했으나 사바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에게 2급 조국전쟁 훈장이 추서됐다.

이탈리아에서의 활약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에서 맹활약한 러시아인으로는 알렉세이 플레이세르가 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19세기 초부터 이 집안의 남자들은 대대로 장교로 살아왔다. 하지만 크림사관후보생 학교에 다니던 알렉세이는 1920년 11월 세바스토폴에서 콘스탄티노폴을 거쳐 유고슬라비아로 망명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플레이세르는 유고슬라비아 주재 그리스 외교사절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사절단 지하실에서 전황 보고서와 반파시스트 문헌, 전단을 찍어내 배포했다. 1941년 4월 플레이세르는 그리스 사절단을 따라 베오그라드를 떠나 이탈리아로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알렉산드르 슴바토프 공



러시아 디아스포라 박물관 © 《루스키 미르》

작의 도움을 받아 시암(태국) 대사관에 취직했다. 1943년 9월 대사관이 이탈리아 북부로 대피한 뒤에도 플레이세르는 로마에 남아 대사관 관저로 쓰이던 저택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그곳은 곧 러시아 망명자 지하조직의 은신처가 돼 ‘러시아 포로 보호 위원회’의 회합이 이 저택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플레이세르는 ‘알레시오 체르보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는 강제수용소에 갇힌 소련 병사들의 탈출을 계획했으며 탈출자들을 섭외해 파르티잔 부대를 꾸렸다. 지하활동으로 그가 구한 소련 전쟁포로는 180명이 넘는다. 플레이세르는 자기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적계’도, ‘백계’도 아닌 러시아인이다.”

남아메리카에서의 활약

레지스탕스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벌어진 운동이었지만, 러시아 망명자들이 소련을 도우려 움직인 흔적은 남아메리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르헨티나다. 러시아 해군 지휘관이자 극동과 북미 해안 탐험가였던 콘스탄틴 필킨 제독의 이름은 베링해 프로비데니아만에 남아 있다. 그런데 이 해군 가문의 자손들은 훗날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아르헨티나에는 친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몰래 모스크바 라디오를 들었다. 그리고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람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했다. 가브리엘로프-필킨 가문에는 지금도 특별한 녹음 기록이 남아 있다. 러시아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소련 군가 ‘카튜샤’를 부르는 목소리다. 이들은 전쟁 당시 라디오로 들은 멜로디를 받아 적어 스페인어로 옮겨 부르며 노래를 직접 녹음해 뒀다.

러시아인들이 파시즘에 맞선 또 다른 방식은 모스크바 ‘러시아 디아스포라 박물관’ 전시장 한쪽에 놓인 수수한 구두 한 켤레가 조용히 보여준다. 이 구두의 주인은 바로 엘레나 안티포바다. 진열장에는 브라질 언론인 오투 라라 헤젠지가 남긴 묘사가 함께 인용돼 있다. “엘레나는 이삭처럼 가늘고 곧다. 약한 여자이면서도 강인한 슬라브인이며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근시였지만 놀라운 통찰을 지녔다. 늘 무언가를 곱씹고 고민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브라질 여자’이자 아이들의 영혼을 빚어낸 사람이었다.” 안티포바는 브라질 초등교육 방식을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그는 현지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한 자선재단을 세우고 군사·정



알렉세이 플레이세르 © 《루스키 미르》

“ 레지스탕스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벌어진 운동이었지만
러시아 망명자들이 소련을 도우려 움직인 흔적은
남아메리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


치 체제가 거칠게 흔들리던 시대에도 학부모와 행정 관료, 학계 전문가, 가톨릭교회를 끌어들이며 발달 특성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을 마련했다. 브라질인들이 그를 ‘러시아에서 온 열세 번째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집은 기념관으로 남았으며 이비리테에는 동상까지 세워졌다.

역사적 기억의 일부로

마리나 소로키나는 전후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참여자들의 생애를 확인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증언과 자료를 통해 레지스탕스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는 국가 훈장을 받고 사회적 지원도 받았다. 그 덕분에 러시아 망명자 출신의 반파시스트들 가운데서 ‘레지스탕스 훈장’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국가마다 레지스탕스를 연구해 온 방식도 다르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레지스탕스에 관한 방대한 연구와 문학이 축적돼 있다. 프랑스의 반파시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사회가 겪었던 굴욕과 수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종의 ‘치료 과정’이기도 했다. 반면에 옛 유고슬라비아는 사정이 다르다. 러시아인과

세르비아 역사학자가 함께 만든 『유고슬라비아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러시아인들의 기억 책』이 나온 것도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 『기억 책』을 쓴 작가 중 한 명이 바로 마리나 소로키나다.

끝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러시아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러시아어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 민족 정체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핵심 표지는 ‘공통된 역사적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 레지스탕스 운동이 그 기억의 일부라면 그것은 엄청난 상징적 자원이다. 동시에 재외 교포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자원을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리나 소로키나는 러시아 레지스탕스 영웅들을 러시아의 국가적 기억 속에 다시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루스키 미르》

“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 민족 정체성에 속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핵심 표지는 ‘공통된 역사적 기억’ ”

플리세츠키야와 셰드린

예술에 바친 삶 이야기

박선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2025년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이야 플리세츠키야와 그녀의 남편인 작곡가 로디온 셰드린 부부에게 축하와 추모가 동시에 이어진 해였다. 플리세츠키야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0주기였던 2025년에 셰드린이 92세를 일기로 타계했기 때문이다. 57년간 함께한 아내를 2015년에 먼저 떠나보낸 뒤 급격히 쇠약해진 셰드린은 이후 10년간 뮌헨에서 홀로 지내다 지난해 8월 29일 아내 곁으로 떠났다. 그의 부고는 작곡가 소피야 구바이둘리나,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 같은 원로 예술인들과 연출가 유리 예료민, 유리 부투소프를 비롯한 여러 연극인의 타계 소식이 잇따르던 지난해 8월에 전해져 더 큰 상실감을 안겼다.

2015년, 뮌헨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자신의 90세 기념 공연을 세심히 준비하던 플리세츠키야는 라틴어 어원으로 '5월 탄생'을 뜻하는 '마이야'란 자신의 이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듯 5월에 사망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셰드린은 화장한 아내의 유해를 자신의 피아노 위에 올려두고 그녀를 기렸다. 셰드린 사망 후 두 사람의 유해는 합쳐져 지난해 11월, 셰드린가의 본향인 알렉산 인근 오카강 상공에 뿌려졌다. '화장 후 유해를 합쳐 러시아 위에 뿌려 달라'는 그들의

“ 발레리나 플리세츠키야와 작곡가 세드린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애정과 신뢰를 잃지 않은 채
서로의 뮤즈와 버팀목이 되어 준
이상적인 예술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 ”

공동 유언에 따른 것이다.

각자의 이름을 딴 학교와 박물관은 물론 소행성까지 존재하고, 러시아 역사상 유일하게 ‘조국 공로 훈장’ 전 등급을 수훈한 ‘국민 예술가’ 부부. 반세기 넘게 생을 함께했고 생을 마친 후에는 기념제 역시 같이 맞이하게 된 부부. 서로의 천재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예술을 위해 아이도 포기했던 부부. 플리세츠키야와 세드린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애정과 신뢰를 잃지 않은 채 서로의 뮤즈와 버팀목이 되어 준 이상적인 예술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 마이야 플리세츠키야

『나, 마이야 플리세츠키야...』. 1994년, 발레리나는 3년에 걸쳐 직접 써 내려간 자신의 첫 자서전을 출간하며 이렇게 제목 붙였다. 강한 자기애와 자기 확신을 지닌 한 예술가가 엄혹한 현실에 맞서 대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삶을 기록한 자서전 제목으로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플리세츠키야와 세드린(1971) © 《리아노보스티》

‘마이야 플리세츠키야’란 이름 속에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한다. 이는 단순한 음성적 대비에 그치지 않는다. 일상 속 부드럽고 소박한 ‘마이야’와 창작 속 강인하고 화려한 ‘플리세츠키야’가 만나 인간 ‘마이야 플리세츠키야’라는 존재가 완성된다. 플리세츠키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최고 권위의 평전 시리즈인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에서 발레리나의 평전을 출간한 니콜라이 예피모비치는 그녀를 “평범한 여신”, “차가운 별이 아니라 따뜻한 별”로 묘사하며 ‘마이야 플리세츠키야’를 둘러싼 대중적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다. 플리세츠키야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한 작가 조야 보구슬랍스카야(시인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의 아내) 역시 그녀 존재의 역설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무대 위 천상의 모습과 지나칠 정도로 솔직한 일상의 모습 사이에 놓인 큰 간극이 늘 놀라웠다는 것이다. 남편 세드린 또한 “마이야의 성격에는 복종과 반항이 공존한다”라고 쓰기도 했다.

플리세츠키야는 창작에서는 늘 새로움을 추구했지만, 일상에서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1960년대에 구매한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같은 남편, 같은 가사도우미와 함께 살았고, 같은 가구, 같은 향수를 사용했다. 평생 축구를 열렬히 사랑한 것 역시 변함이 없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50년 넘게 이어진 피에르 가르렝과의 친분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마이야 플리세츠키야’란 이름에서 감지되는 이런 모순과 양가성은 오히려 발레리나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소비에트 발레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소비됐지만, 정작 소비에트 체제를 견디지 못했던 인물이었고, 소련을 증오했던 끝내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소비에트 권력을 경멸하면서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 소비에트 권력이 부여하는 훈장과 칭호들을 기꺼이 받았던 인물이었다.

플리세츠키야는 1925년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2015년 5월 2일 뮌헨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로 내 삶은 아주 길었고 과도하게 채워져 있다.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스크바 무용학교 입학(1934년)과 아버지의 반국가 혐의 체포와 총살(1937~38년)은 89년에 이르는 그녀의 긴 생애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숙명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기도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녀의 인생 전체는 ‘인민의 적’의 딸이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투쟁기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창작을 위한 투쟁이었다. 무용 평론가 제니퍼 호먼스는 저서 『아폴로의 천사들: 발레의 역사』에서 “그녀의 춤추기는 아름다움이나 조화와는 무관했다. 그것은 싸움이었다”라고 쓴 바 있다.

1947년부터 1977년까지 30년에 걸쳐 볼쇼이 극장과 국외 무대에서 800회 이상 공연한 「백조의 호수」는 플리세츠키야를 지켜 준 견고한 철갑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다. 스탈린은 사망 며칠 전 플리세츠키야가 출연한 「백조의 호수」를 관람했고, 플리

“ 그녀의 인생 전체는 ‘인민의 적’의 딸이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투쟁기로 요약될 수 있어 ”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오데트 역을 연기하는 플리세츠카야(1973) © 《리아노보스티》

세츠카야와 생년월일이 같은 로버트 케네디 역시 이 발레를 관람한 뒤 꽃다발과 선물을 호텔로 보내왔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전 레퍼토리, 즉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잠자는 미녀», 「죽어가는 백조」 등과 같은 작품들에 피로감을 느낀 플리세츠카야는 무언가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점점 더 강렬히 원하게 됐다. 그녀의 이런 창조적 갈증을 해소해 준 「카르멘 모음곡」이라든지 「안나 카레니나», 「갈매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등과 같은 신작을 위해 그녀는 극장 안팎의 권력자들과 또다시 싸워야 했다. 훗날 그녀는 이 권력자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자신이 승리하였음을 당당히 선언했는데, 이는 그녀 옆에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창작에서나 일상에서나 그녀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남편 로디온 세드린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그, 로디온 세드린

‘위대한 발레리나 플리세츠카야의 남편’. 세드린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식어이지만, 사실 그는 플리세츠카야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주목받기 시작한 전도유망한 젊은 작곡가였다. 1954년, 모스크바 음악원 4학년생이었던 세드린은 자신이 협연자로 직접 나섰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연주회에서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를 계기로 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련 작곡가 동맹의 가입 권유 서신을 받고 동맹에 가입할 수 있었다(1962년부터 작곡가 동맹이 사회 서기를 지냈고, 1973년 의장으로 선출되어 1990년 자진 사임할 때까지 이 직책을 수행했다). 1957년 스물다섯 살 대학원생이던 세드린은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과 지식인들의 만남에 젊은 재능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명되어 참석했다. 같은 해 개봉한 알렉산드르 자르히 감독의 영화 「고공」 등의 음악을 작곡하고, 그 고료로 ‘승리’란 뜻의 러시아 자동차 ‘포베



로디온 세드린 © 《타스통신》

다'를 샀다. 이어 1958년에는 볼쇼이 극장으로부터 발레곡 「곱사등이 망아지」를 위촉받기도 했다. 그의 눈앞에 '승리'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세드린은 1932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2025년 8월 29일 뮌헨에서 사망했다. 그는 알프레트 시닛케, 소피야 구바이둘리나 등과 같이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혁신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갔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넘나들며 러시아 민속 음악(민요나 차스투스카), 정교회 음악, 재즈, 유럽의 아방가르드를 자유롭게 결합하거나, 때로는 이를 실험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는 그를 가리켜 '혁신가'라고 평했는데, 작곡가 자신은 2002년 《뉴욕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것, 미래 세대에게 흥미롭게 되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라며 혁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세드린은 생전에 이미 '살아 있는 클래식'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의 공이 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으려 애쓰던 마린스키 극장의 예술 감독 게르기에프는 세드린을 발견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지휘자는 세드린의 예전 작품

“ 세드린은 시닛케, 구바이둘리나 등과 같이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혁신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 ”

들을 발굴해 마린스키 극장 관객은 물론 국의 청중에게 지속해서 소개하는 한편 새 작품을 위촉하며 그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로써 세드린에게는 '제2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한 활동기가 찾아왔다. 그 결과, 20세기 내내 '플리세츠카야의 남편'으로 호명되던 세드린의 위상은 21세기에 들어 조금은 달라진 듯 보였다. 작곡가의 작품 초연장에서 플리세츠카야는 '세드린의 아내'로서 남편과 동행하는 모습이 더욱 자주 목격됐다. 2002년 작 오페라 「매혹당한 편력자」는 2007~08년 마린스키 극장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 뒤 2009년에 러시아 공연 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황금마스크상에서 작곡가상을 받았다.

가장 의미 있는 신작으로는 2013년 마린스키 극장 신관 개관 및 게르기예프 환갑을 기념해 작곡된 오페라 「원손잡이」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세드린과 플리세츠카야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인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데다 '러시아성(Russianness)'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을 진지하게 반영한다. 2013년 열린 제21회 '백야의 별들'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초연된 이 작품은 지휘봉을 잡았던 게르기예프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기도 했다.

그들, 삶과 창작의 동반자들

플리세츠카야는 세드린과의 결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으로 여겼다. 플리세츠카야와 세드린이 '혁명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뮤즈이자 연인으로 유명했던 릴랴 브리크의 살롱에서 1955년에 만나 3년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는 사랑 외에도 고려된 것이 있었다. '인민의 적'의 딸에 더해, 당시 '영국 간첩' 혐의까지 받았던 플리세츠카야는 5년간 출국 금지자 명단에 올라 볼쇼이 극장의 서방 순회공연에서 제외됐다.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는 24시간 그녀를 미행했고, 심지어 볼쇼이 극장 객석에까지 요원을 투입해 박수 치는 관객들을 끌어내기



「마이아와 로디온」 추모 음악제 포스터 © 마린스키 극장



「죽어가는 백조」의 플리세츠키야 © 《리아노보스티》

도 했다. 분노와 굴욕감을 느끼고 있던 그녀에게, 당시 공산당 정치국 소속이었고 곧이어 문화부 장관이 된 예카테리나 푸르체바는 ‘결혼을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라’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플리세츠키야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보다 일곱 살 연하인 세드린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세드린은 이를 승낙했다. 1958년 10월 2일 혼인 신고하고 2015년 플리세츠키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들은 57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갔다.

실제로 결혼은 효과가 있었다. 플리세츠키야는 흐루쇼프에게 반성과 애원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뒤 1959년 미국 순회공연을 떠날 수 있었다. 대신 세드린은 ‘인질’처럼 모스크바에 남아 있어야 했다. 당시 세드린은 플리세츠키야와 결혼해서 출세하기가 어려우리라는 말을 잊진 않으리라고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후 활발해진 이들의 협업은 발레사는 물론 음악사에도 길이 남을 작품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세드린은 결혼 이후 작곡한 모든 발레 작품을 한결같이 아내인 플리세츠키야에게 헌정했다.

‘태초에 몸짓이 있었다’라고 강조한 그녀에게 무용은 단순한 테크닉의 집합이 아니라 몸짓을 통해 인간의 영혼과 심리를 드러내는 행위였다. 그 덕분에 플리세츠키야는 기계적인 테크닉보다는 표현성을 더 중시한 드라마틱 발레리나로 이름을 떨쳤다. 더욱이 고전 레퍼토리에서조차 독창성을 추구하던 그녀는 「백조의 호수」의 하이라이트인 흑조 오딜의 32회전 푸에테를 큰 원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바꿔 관객들을 열광시켰다(물론, 여기에는 테크닉 문제도 개입했다. 지나치게 솔직했던 그녀는 자신이 푸에테를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죽어가는 백조」에서는 안나 파블로바와의 차별화를 위해 객석을 등진 채 등장하는 파격을 보였다. 그녀는 새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동물원을 찾기도 했는데, 그녀의 팔과 손의 움직임은 백조의 날갯짓뿐 아니라 물결 자체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유연했다.

“플리세츠카야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카르멘 모음곡」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표출돼”

플리세츠카야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1967년 작 「카르멘 모음곡」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표출됐다. 1966년 말, 알베르토 알론소가 이끄는 쿠바국립발레단의 모스크바 공연을 관람한 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루고 싶었던 「카르멘」의 발레화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 그녀는 알론소에게 안무를 의뢰했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와 아람 하차투란이 모두 거절한 음악 작업을 세드린에게 부탁했는데, 그는 단 20일 만에 완성했다. 세드린은 조르주 비제의 4막 오페라 「카르멘」을 알론소의 단막 발레 리브레토에 맞춰 약 40분 분량으로 압축했고, 관악기를 배제한 현악기와 타악기 편성으로 과감하게 재구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쟁으로 초연 무대를 쟁취한 플리세츠카야(와 세드린)는 외설적이란 이유로 두 번째 공연이 취소되는 사태를 겪었지만, 이후 「카르멘 모음곡」을 끝내 지켜내 볼쇼이 극장에서만 130회 이상 공연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무대 의상과 장치, 그리고 안무 형식은 기존의 규격화된 발레 문법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의 의미로 읽히기도 했다. 그 덕분에 속박을 거부하고 자유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던 정열적인 카르멘은 플리세츠카야의 분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플리세츠카야는 자신이 예술에서 이뤄낸 가장 큰 업적을 「카르멘 모음곡」으로 꼽았을 만큼 이 작품을 애정했다. 2015년, 발레리나 90세 기념으로 모스크바에 세워진 조각상은 다름 아닌 카르멘으로 분한 플리세츠카야였다. 예산을 책임지는 정부 관료들은 ‘백조’를 추천했지만, 우직하게 ‘카르멘’만을 고집한 우랄 출신 조각가 빅토르 미트로신과 조각가를 지지한 세드린 덕분이었다. “나는 죽겠



「카르멘 모음곡」 속 카르멘 역의 플리세츠카야 © 《리아노보스티》



영화 「안나 카레니나」 속 벤티 역할을 맡은 플리세츠키야 © 《클래식뮤직뉴스닷컴》

지만 카르멘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플리세츠키야의 말은 이렇게 현실이 됐다. 「카르멘 모음곡」 이후에도 외국 안무가들과의 작업은 이어졌는데, 모리스 베자르의 「볼레로」와 「이사도라」, 롤랑 프티의 「장미의 죽음」이 대표적이다.


플리세츠키야는 안무 작업에도 도전했다. 1971년, 자르히 감독의 영화 「안나 카레니나」에 벤티 역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발레 「안나 카레니나」를 탄생시켰다. 영화에 삽입된 세드린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던 플리세츠키야와 영화에서 자신의 음악이 난도질당해 상심했던 세드린은 “우린 발레를 만들 거야. 완전히 우리 방식으로...”라는 목표 아래 발레화 작업을 추진했다.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발레화 작업이자 플리세츠키야의 첫 안무작이었던 발레 「안나 카레니나」의 성공을 계기로 그녀는 「갈매기」(1980)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1985)을 안무해 볼쇼이 극장 무대에 올렸다. 음악은 모두 세드린이 담당했고,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 플리세츠키야의 의상은 피에르 가르방이 담당했다. 플리세츠키야는 세드린이 자신의 활동을 최소 25년은 연장해 줬노라고 밝히며 세드린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독단적인 방식으로 발레단을 이끌던 유리 그리고로비치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1990년, 65세의 플리세츠키야는 1943년에 입단하여 47년간 몸담았던 볼쇼이 극장에서

“「안나 카레니나」의 성공을 계기로 「갈매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안무... 플리세츠키야는 세드린이 자신의 활동을 최소 25년은 연장해 줬노라고 밝혀”

“ 플리세츠키야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깨달음을 마르크 샤갈에게서
배웠다고 말해 ”

해고당했다. 발레리노 세르게이 랫첸코는 그녀를 ‘불도저’에 비유하며 ‘자신의 재능으로 누구든 쓸어낼 수 있었다’라고 회상했지만, 그녀의 재능도 세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내외외강의 플리세츠키야와 내강외유의 셰드린.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던 플리세츠키야와 세 가지 소원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영원히 제 아내와 함께하는 것”을 세 번 되풀이하던 셰드린. 이 부부는 ‘불과 물’(고난)과 ‘청동 나팔’(영광)을 모두 함께 지나왔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음이 임박했던 플리세츠키야는 “나 기억나?”라는 셰드린의 물음에 “많이 사랑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깨달음을 마르크 샤갈에게서 배웠다는 플리세츠키야의 말처럼, 오카강 위에 뿌려진 그들의 유해는 지금 마을과 도시 위, 하늘을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소행성 4625(셰드린)와 소행성 4626(플리세츠키야)처럼 우주에서 각자의 궤도를 충실히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절대 짧지 않았던 생의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창작했던 두 예술인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말년의 플리세츠키야와 셰드린(2005) © 《리아노보스티》

푸틴의 침묵 베네수엘라·이란 사태에 대한 러시아 반응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026년 1월 국제 정치는 짧은 시간 안에 두 개의 사건으로 크게 흔들렸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와 거의 동시에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다. 러시아는 두 사건이 자국의 전통적 우방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태에 특별히 주목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외무부와 주요 인사들은 즉각 강경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식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언론은 이 발언 부재, 즉 '침묵' 자체에 주목하며 이를 의도된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했다. 1월호 「미디어 트렌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이란 시위를 둘러싼 러시아 언론 보도를 따라가면서, 러시아 주요 매체에 비친 푸틴의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1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군사 작전을 전격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실리아 플로레스 영부인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연행됐다. 이를 뒤인 1월 5일 이들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해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주권국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 법정에서 서는 장면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군에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 《리아노보스티》

이에 대한 러시아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러시아 주요 매체들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 등 중남미 국가들과 제3국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국제법 위반’, ‘법적 금기의 파괴’,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파시스트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에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미 2025년 12월 러시아 외무부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동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 법원이 타국의 국가원수에 대해 내리는 모든 판결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도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리아노보스티》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해외정보국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의 폭력적인 마두로 구금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나리시킨은 미국의 이런 행동이 기존의 ‘독단적(강권적) 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입장도 함께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경하고 냉소적이다. 마두로 정권 타도는 마약과는 무관하며, 오직 석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타스통신》은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의 별도 인터뷰를 전하며 한층 더 직설적인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메드베데프는 “선출된 국가 원수가 납치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침략은 침략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린란드 문제를 언급하며 덴마크를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햇살 가득한 핀도스탄(1990년대 코소보 전쟁 당시 무거운 군장을 갖추고 뒤뚱거리며 걷는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그리스 핀도스 지역의 조랑말(Pindos Pony)이나 펭귄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러시아군 사이에서 미국인을 지칭하는 군대 속어로 재탄생)의 동지들에게 이제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러시아 언론의 보도 방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체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외국 군대가 타국 정상을 무력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것이다. ‘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이 핵심어로 거의 모든 기사에서 반복된다. 특히 《리아노보스티》는 이런 정당성 논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 등 외국 인사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이처럼 러시아 언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성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법 위반과 개입 정치 프레임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이 사건을 범죄 수사가 아니라, 국제 질서 규칙을 흔드는 정치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권교체’라는 표현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언에서는 절제됐지만, 싱크탱크와 전문가 분석에서는 훨씬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 전략가들은 이번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포장된 정권 제거로 해석한다. 미국은 이를 법 집행이라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권력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의 개입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언론은 외국 매체의 시각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가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 미국에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치라는 미국의 논리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의 중심적인 서술은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메드베데프가 “마약과는 무관하다”라고 단언했듯이, 러시아 보도의 초점은 ‘현직 국가원수가 외국 군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춰져 있다. 주권, 무력 불사용 원칙, 국가원수의 면책, UN 헌장 등 국제법 문제가 보도의 중심축을 이룬다. 그래서 러시아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서는 ‘분노’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경계심’을 동반한다. 마두로 개인의 정치적 정당성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그 뒤에 남은 규칙과 질서가 무엇이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러시아 언론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2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월 3일 바로 그날 러시아 주요 언론들은 또 다른 중대한 사안을 함께 다뤘다. 바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거리에서 깃발을 흔드는 이란 시위대 © 위키피디아



이란 시위 발생 지역 © 위키피디아

《리아노보스티》와 《코메르산트》를 비롯한 러시아 매체들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시위가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초기의 평화적 양상에서 벗어나 점차 폭동에 가까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이 공통으로 지적한 이란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 문제였다. 급격한 환율 변동과 리알화 가치 급락, 물가 급등이 시민들의 삶을 압박했고, 이것이 거리 시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즉, 러시아 매체들은 이란 시위의 출발점을 민주화 요구나 체제 전환의 열망이 아니라 생활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도의 초점은 곧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방화, 공공시설 파괴, 경찰과의 충돌, 사망자 발생 등 질서 붕괴 양상으로 이동한다.

이런 보도 경향은 《타스통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매체는 시위 과정에서 50개 이상의 모스크와 180대의 구급차량이 방화됐다고 전하면서, 특히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은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위를 넘어 사회적 충돌과 피해 양상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부각하면서, 사건의 혼란성과 충돌 측면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러시아 언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란 시위를 순수한 내부 사건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 주요 매체의 보도 전반에는 ‘외부 세력의 파괴적 개입’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언론의 해석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관되게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시위와 관련해 “이란 내부 사안에 대한 외부의 파괴적 간섭을 단호히 규탄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적대적인 외부 세력”, “해외의 지시를 받은”, “색깔 혁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시위 배후에 외부 개입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인식은 러시아가 과거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정권교체 사례를 해석해 온 방식과 동일하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볼 때 이란 시위 역시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불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맥락에 놓여 있다. 러시아 언론은 자국 외무부 논평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시위 확산과 긴장 고조를 외부 요인과 연결한다.

이는 다른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로스스카야 가제타》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 내정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간섭”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들은 바실리 네벤지야 러시아 UN 상임대표가 “이란의 상황이 색깔 혁명의 방식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인 발언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외부 세력이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공공연한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은 여기에 외국 주요 인사의 유사 발언도 덧붙였다. 《타스통신》은 오스트리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 분석가인 카린 크나이슬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언급과 “외부 간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평가를 전했다. 이는 러시아 언론이 외부 인사의 발언까지 활용해 이란 시위를 외부 개입이 결합한 사태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 틀 속에서 러시아 언론은 시위가 급격히 악화한 계기로 특정 외부 발언을 지목한다. 특히 《코메르산트》는 폐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대법원장이 유화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전하면서, 그 배경으로 이란이 평화 시위 군중을 살해하면 미국이 지원하리라고 경고한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결국,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바라보는 러시아 언론의 시각은 서방 언론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화, 인권, 자유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서방의 보도와 달리, 러시아 언론은 이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 혁명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 위기에서 시작된 사회적 불만이 외부 세력의 개입과 결합해 정치적 혼란으로 확대된 사례로 묘사한다. 이란의 내부 불만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불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러시아 보도의 중심축을 이룬다. 요컨대, 러시아 언론에서 이란 시위는 체제 전환의 서사가 아니라, 주권, 질서, 외부 개입이라는 국제정치적 문제로 비치고 있다.



테헤란에서 열린 친정부 집회 ©《리아노보스티》

#3

러시아의 계산된 공백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국제 사회를 강타한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는 러시아 정부와 언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나온 모든 반응에서 유독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푸틴의 공식 연설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러시아 언론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공식 발언의 부재였다. 푸틴 대통령은 공개 일정과 회의를 이어갔지만, 베네수엘라 또는 이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의도된 침묵으로 해석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됐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외무부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대통령은 거리를 유지한다. 의도된 거리두기인 셈이다. 분노는 표현하되,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외교 방식이다. 러시아는 원칙의 문제에서는 강경하지만,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러시아의 태도는 감정적 분노와 정반대다. 러시아는 화가 났지만, 흥분하지 않는다. 감정적 분노와 전략적 계산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러시아식 현실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분노는 표현하되, 전략은 흔들지 않는다.

러시아 정치학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인 표도르 루키야노프 역시 이런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가까운 파트너이자 오랜 동맹국인 만큼, 미국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가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사태가 러시아에 매우 불편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대통령실

베네수엘라가 지리적으로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정학적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만큼, 러시아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푸틴의 침묵은 분명한 계산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상황에서, 크렘린은 최고지도자의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외무부와 안보 라인이 강경 발언을 담당하고, 푸틴 본인은 직접 언급을 피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긴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자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돼 있으며,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루키야노프는 역시 “기술적·물류적인 이유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가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행동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침묵은 약속을 만들지 않는 선택이다. 푸틴이 공개적으로 마두로나 이란 정권을 강하게 옹호할 경우,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붙게 된다. 침묵은 이런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언론 내부의 온도 차이다. 국영·친정부 매체들은 푸틴의 침묵을 거의 문제 삼지 않고, 외무부 발언과 국제법 논쟁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독립 언론들은 이 침묵 자체를 기사 제목으로 끌어올리면서, ‘왜 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침묵이 가져오는 비용도 분명히 지적한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서방의 개입에 맞서 주권을 지켜주는 강대국’, ‘동맹을 버리지 않는 파트너’로 오랫동안 묘사해 왔다. 그런데 우방국 지도자가 체포되고, 또 다른 우방국이 대규모 혼란에 빠졌음에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은 이미지 실추와 신뢰 약화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평가한다.



표도르 루키야노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연구교수 © 위키미디어

결국, 러시아 언론이 그려내는 푸틴의 침묵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무관심도, 실수도 아니다. 대미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우선순위, 외교적 위험 요인, 그리고 강대국 이미지 사이에서 선택된 계산된 공백이다. 이 침묵은 판단의 유예이자, 행동을 약속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동시에 지금 러시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러시아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개입을 피했고, 그 공백 속에서 세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침묵을 해석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사태를 두고 러시아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푸틴이 끝내 하지 않은 말이었다. 